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56 - Winter 2024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auri)

어

촌

어

항

재

생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건축과 도시공간

Vol.56 - Winter 2024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6
Winter 2024

발행 2024년 12월 31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이영범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책임 고효진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이슈 기획 서수정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 이미영, 송예지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표지

어촌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식량의 보고이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 우리나라와 지역만의 전통·해양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아가 이곳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어촌의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숨 쉬게 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CONTENTS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	명상순	006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	정인아	011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한 모델, 마을보건실	한지숙	018
수변문화 프로그램, 불 꺼진 항구마을에 문화를 더하다	손유진	026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서수정	032

통계자료실

건축물 안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오민정	040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협의·조정에 기반한 암스테르담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이세진	046
	파리 도심 UAM 시험 비행과 센강변 부유식 버티포트 설치 시사점	남성우	050
국내동향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건축기획 시범사업 추진의 의의와 효과	남궁진	055
해외단신	2024 유럽 공공공간상 수상작 발표 외		060
국내단신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 외		064

장소탐방

떠 있는 학교 - 용남고등학교	박기우	070
주민을 위한 심포의 공간 - 도깨비마당	김명재·최여진	086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02
- 2024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 개최 104
- 2024 고령친화 정책포럼 개최 105
- 2024 제6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105
- auri International Forum 개최 106
- 2024 건축공간연구원-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106
-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107
- 2024 AURI 경관포럼-(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108
- 2024 AURI 주거정책포럼 개최 108
- 건축·도시·건설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109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9
- 2024 HUE INTERNATIONAL FORUM 공동 개최 110
-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110
- 건축공간연구원-대구광역시 수성구 MOU 체결 111
- 건축공간연구원-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구건축사회 MOU 체결 112
- 건축공간연구원-킨키대학교 MOU 체결 및 국제교류 세미나 개최 112
- 건축공간연구원-한솔아이키움 MOU 체결 113
- 건축공간연구원-세종시교육청 MOU 체결 113
- 한국도시부동산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AURI 세션 개최 114
- 2024 AURI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114
-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115

1

2022년도에 시작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이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거점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운영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운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간담회 예비 근무



전남 포항



이콜스테이션 프로그램 시범운영 시제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 | 어촌은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해양영토 수호, 활력을 재충진시켜 주는 여가공간 제공, 바다환경 보존,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전통문화 계승·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 |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시행착오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목표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의 실현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한 모델, 마을보건실 | 어업인들은 초업의 특성상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마을보건실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어촌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었다.

수변문화 프로그램, 불 꺼진 항구마을에 문화를 더하다 |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의 근원지를 찾아 보면 결국 즐길 거리가 언급되었다. 장승포권역 시범사업의 방점이 '문화'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무언가를 구심점 삼아 모여들고 그로 인하여 빈 공간이 채워지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사업대상지인 1차 어촌생활권을 넘어 2차 어촌생활권, 더 나아가 인접한 어촌생활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
006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
011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한 모델,
마을보건실
018

수변문화 프로그램,
불 꺼진 항구마을에
문화를 더하다
026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
032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

명상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사무관

어촌소멸의 위기

저출생 문제*로 미래세대 부담은 커지고 국가 경쟁력 저하와 국가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출생률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81.2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4년 약 5,200만 명에서 2072년에는 약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위기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89개의 기초지자체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 농촌보다는 어촌의 상황이 더 심각한 편이다. 어촌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 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경제 여건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더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어가인구는 2000년 대비 61.4%가 감소하였으며(2000년 25만 1,000명 → 2020

* 합계출생률: 1970년 4.53명 → 2023년 0.72명(출처: 통계청)
** 출처: 통계청
***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국/어촌): 2010년 9.1%/23.1% → 2015년 13.1%/30.5% → 2023년 18.2%/48%(출처: 통계청)

년 9만 7,000명), 어가인구 감소율은 농가인구 감소율 대비 2.5배에 이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 494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의 중요성

어촌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렇듯 소멸해 가고 있는 어촌을 방치할 수는 없다. 어촌은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해양영토 수호, 활력을 재충전시켜 주는 여가공간 제공, 바다환경 보존,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전통문화 계승·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2019년 기준 약 8,8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류정곤, 2019, p.125). 어촌이 소멸되는 것은 단순히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생산 거점, 국토의 수호기지, 국민들의 휴식처, 해양환경 보존 거점, 해상 사고 구호처가 사라지는 것이다.

어촌소멸 극복을 위한 발걸음: 어촌뉴딜300사업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귀어·귀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가속화하고 있는 어촌소멸 속도를 고려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 등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3조 원(개소당 평균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141개

* 어가인구: 2018년 12만 명 → 2023년 8만 7,000명(▲27.5%), 농가인구: 2018년 231만 명 → 2023년 208만 명(▲9.9%)(출처: 통계청)
**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 고위험지역은 0.2 미만

소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준공된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어 여객선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어났으며, 소득사업 시행으로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 만재도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접안시설을 마련하여 사람이 살기 시작한 17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여객선이 접안하였으며(기존에는 해상에서 중선으로 환승),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시간도 5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었다. 경북 경주시 수렴항은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상습 피해지역이었으나 월파방지시설 개선 이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 강화군 후포항과 경기 화성시 백미항의 경우 시설 정비를 통해 정체되고 쇠퇴해 가던 어촌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늘었으며 주민 소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어항시설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어촌활력 저하 및 어촌소멸 문제를 온전히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어 왔다.



만재도에 조성된 접안시설
출처: 해양수산부(2021)



수렴항 월파방지시설 개선

* 여객선 이용객 수(21개소): 2019년 151만 9,000명 → 2022년 166만 명, 유동인구(71개소): 2019년 3,808만 명 → 2022년 3,869만 명(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포항 상인 매출액 증가 40%, 백미항 관광객 증가 297%(출처: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한 도약: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취약한 어촌의 해상교통, 정주 여건, 어업 기반 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어촌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보건·복지 등 생활 전반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200만 명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산업 기반 지역을 어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1유형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사업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수산물 상품화센터와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와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소를 형성하는 제2유형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방어항·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 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 수준을 확보한다. 재해안전시설과 어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 앵커조직이 지역조사, 지역사회 의제 발굴, 사회혁신실험 시행 등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앵커조직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의 시각에서 삶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착시키게 된다. 2023년 65개소(유형1 5개소, 유형2 30개소, 유형3 30개소), 2024년 33개소(유형1 5개소, 유형2 10개소, 유형3 18개소) 등 총 9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삶의 질 만족도(2020년) 어촌 4.4, 농촌 5.1, 도시 6.4(출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재인용)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사업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행 시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환류를 통해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22년부터 충남 태안, 전남 고흥, 경남 거제, 강원 동해 등 4개 지역에 대해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의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과 유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소멸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연안을 많이 찾는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하여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주민들이 살맛 나는 그날까지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류정곤, 엄선희, 박상우, 고동훈, 심성현, 오서연. (2019).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3 해양수산부. (2018). 어촌의 새로운 경제 활력, 어촌뉴딜300 본격 시동. 12월 19일 보도자료.
- 4 해양수산부. (2021). 어촌뉴딜로 어촌생활이 확 바뀐다. 4월 21일 보도자료.
- 5 해양수산부. (2022). 어촌에 총 3조원 투자... '잘사는 어촌' 시대 연다. 9월 23일 보도자료.
- 6 해양수산부. (2024).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5월 13일 보도자료.

정책이슈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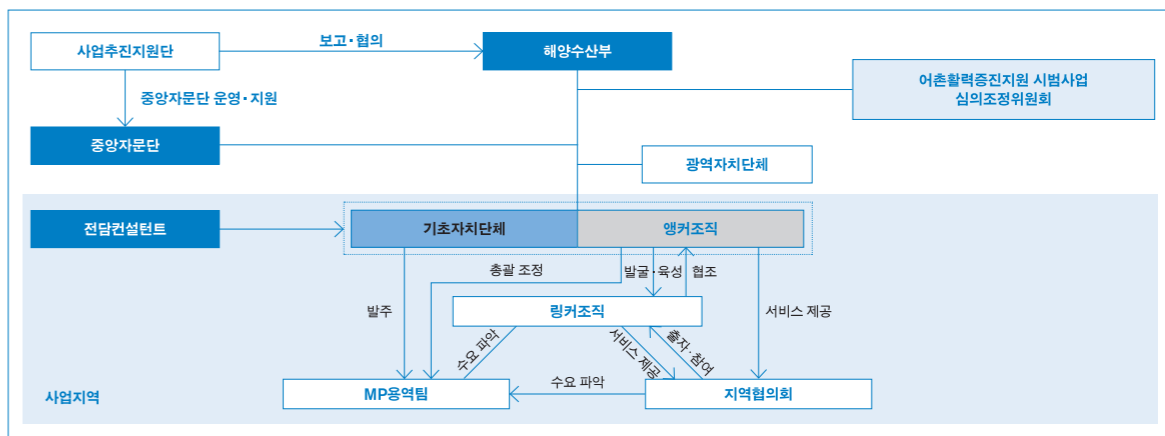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전개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2년 시작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지역의 자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목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출처: 서수정 외(2024, p.24)

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업추진체계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전담조직과 역량 있는 민간주체인 ‘앵커조직’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며, 앵커조직은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앵커조직은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앵커조직은 어촌지역의 1, 2차 생활권을 연계하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어촌에 특화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조직 및 기업 등의 ‘링커조직’을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지소, 돌봄센터, 복지센터 등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와 로컬경제를 견인하는 기업, 기술자, 로컬벤처, 소셜벤처 등이 링커조직이 될 수 있다(서수정 외, 2024, pp.25-26). 앵커조직과 링커조직은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며 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인 ‘어촌스테이션’을 통해 사업종료 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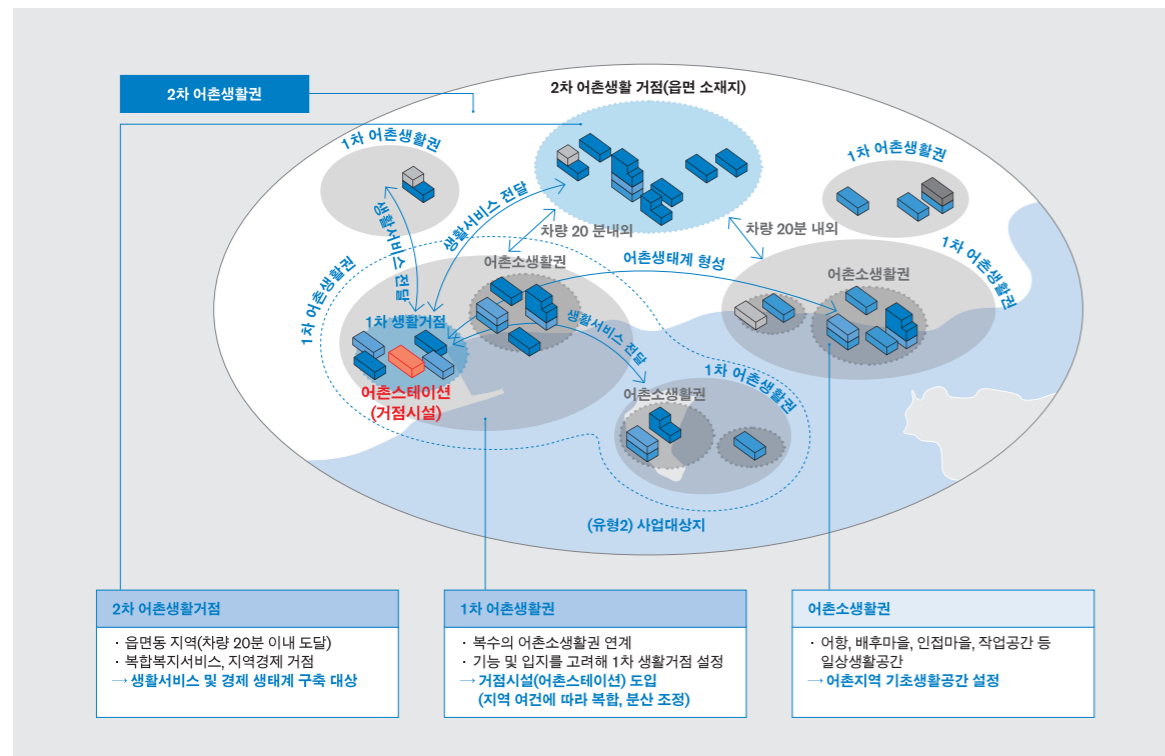
구분	강원 동해	충남 태안	전남 고흥	경남 거제
지역	대진항·어달항 및 배후마을	마검포항 외 3개 소규모 어항 및 배후마을	금진항 및 배후마을	장승포·능포항 및 배후마을
앵커조직	협동조합문화발전소 공감	지역발전네트워크, (주)로컬모티브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주)공유를위한창조
조직형태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출처: 서수정 외(2023, p.5)

에도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제공과 경제생태계 구축이 지속되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강원 동해, 충남 태안, 전남 고흥, 경남 거제 네 곳에서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앵커조직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사업추진체계와 사업추진방식을 토대로 2023년부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에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다.

어촌생활권-생활거점 및 사업대상지 설정 개념



출처: 해양수산부(2024.9, p.18)

어촌스테이션의 운영을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개념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가와 협업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나 협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제품, 서비스 및 모델)로 정의된다. 즉, 사회에 이로우면서도 지역사회의 행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의미한다(Murray et al., 2010, p.3).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시행착오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목표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의 실현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혁신 프로그램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핵심의제를 위한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실현 가능할지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협업체계, 공간조성 등의 아이디어는 각각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 핵심의제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근이 필요하다. 또한 앵커조직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관계되는 협업주체로서 다양한 링커조직을 연계하여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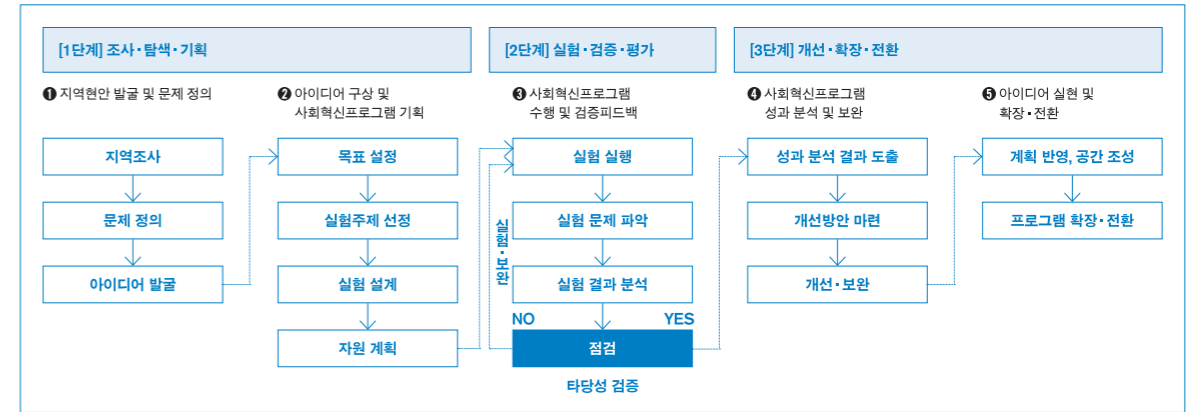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목표인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이러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결과가 구체화되고 집약되는 공간은 ‘어촌스테이션’이다. 이에 따라 사회혁신프로그램은 물리적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어촌스테이션의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와 서비스 모델, 일자리 및 수익 창출 등을 구현해내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다양한 어촌에서 추진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지역마다 최우선 해결과제가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촌스테이션은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성될 수 있다.

타당성 검증과정이 도입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운영절차

사업기획과 구상을 토대로 사업이 곧바로 실현되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달리 사회혁신프로그램이 도입된 어촌어항재생사업에서는 타당성 검증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기 전 소규모 저비용의 실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정책사업의 실패 위험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정인아, 김영하, 2023, p.4).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는 1단계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기획’, 2단계 ‘실험·검증·평가’, 3단계 ‘개선·확장 과정’ 등 크게 세 단계로

사회혁신프로그램 수행 절차



출처: 해양수산부(2024. 8., p.26)

추진된다. 1단계는 주민 전수조사와 지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핵심이슈를 2개 이내로 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2단계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는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단위사업으로 확정하여 어촌스테이션 조성 및 연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해양수산부, 2024. 8., p.25).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촌스테이션의 공간 조성 및 함께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부문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될 수도 있다. 또한 계획이 확정되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완결형 사업이 아닌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만들어 나가는 과정형의 사업이므로 사회혁신프로그램 수행절차는 개선과 보완의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사회혁신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사업 추진의 차별성

구분	일반적인 사업 추진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 추진
추진 절차	지역현안 발굴 → 사업 기획 → 사업 실현	지역현안 발굴 → 사업 기획 → 사회혁신 프로그램 → 사업 실현 (피드백 루프 포함)
계획 특성	계획의 완결성을 추구하며 변경 어려움	계획의 유연성을 추구하며 변경·수정 가능
사업 특성	대규모·고비용·영구적 시설 조성	소규모·저비용·임시 실험 후 영구시설 조성
위험 관리	사전 이용수요 등의 예측 정도	시행착오의 경험과 학습으로 사전 대비

출처: 정인아, 김영하(2023, p.4)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적용 의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새로운 사업추진주체(앵커조직, 링커조직)와 실행방식(사회혁신프로그램)이 도입된 선도적인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 적용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지역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주민교육, 마을축

제, 워크숍 등으로 추진된다. 반면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등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어촌어항재생사업에서 추진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촌 특유의 산업과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어촌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사회 및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관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요한다. 이에 따라 사회혁신프로그램에서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전문 분야나 기관의 역량 있는 ‘링커조직’을 발굴하여 단위사업을 이들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2개 이내의 핵심의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의제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발굴하는 의견 수렴을 중점으로 한다. 반면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목표와 직접 관련된 최우선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시범운영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1·2차 생활권을 연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공간환경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촌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수요와 자원의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핵심의제를 선정한다.

셋째,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경험적 의미가 아닌 시행착오를 통해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의 목적’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실험적인 방식으로 생활실험실이나 리빙랩 등의 프로그램은 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단기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간, 사회, 경제의 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일회성이거나 단순 역량강화 교육 성격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정기적인 수행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핵심의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에 적합한 실행수단을 적용하여 실험하는 것이다. 가령, 어촌의 관광업 쇠퇴에 대한 핵심의제에 대해 관광행태 및 수변공간 활성화라는 대안에는 택티컬어버니즘을 적용하고, 어촌의 숙박업, 어촌상권 등 관광 관계자와의 협업과 네트워크 체계구축을 위한 DIT나 커뮤니티디자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동디자인의 방식으로 목업을 만들고 팝업스토어를 시범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행방안을 찾는 것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이 된다.

맺음말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에 적합한 사회·경제·물리적 환경을 점진적으로 찾아가기 위한 실행수단의 역할을 한다. 특히 어촌스테이션의 공간을 조성할 때 공간의 규모나 사업비용, 운영방식과 체계, 수익창출 모델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면서 지역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는 실행전략이 된다. 이는 한정된 사업기간 내에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면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를 증진함으로써 완결된 계획과 현장 간의 괴리, 기대하는 목표와 현 상태 간의 간극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점진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실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

출처

- 1 서수정, 이상민, 제현정, 김영하, 강진민. (2023). '23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건축공간연구원.
- 2 서수정, 이상민, 정인아, 강진민, 이인규. (2024). '24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건축공간연구원.
- 3 정인아, 김영하. (202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4 해양수산부. (2024.8.)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 5 해양수산부. (2024.9.) 어촌신활력증진 유형2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 6 Murray, R., Caulier-Grice, J. & Mulgan, G. (2010). *The open book of social innovation*. Nesta.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한 모델, 마을보건실

한지숙
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사무국장

핵심문제 발굴 과정과 어촌지역의 건강 의료, 돌봄의 현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강원도 동해시 대진생활권은 어달(목호동 16·17통), 대진(목호동 18통), 노봉(망상동 2통 4반) 등 3개의 마을이 1차 생활권이 다. 어달은 어달항과 어달해변, 대진은 대진항과 대진해변을 중심으로 어업과 관광업이 공존하고 있다. 노봉의 경우는 오래전 노봉해변을 통해 어업활동을 해오다 대진항을 공동 사용하면서 어업과 관련된 것을 대진에 넘김으로써 현재는 어업인이 없고, 다만 노봉마을운영위원회에서 여름 성수기에 노봉해변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달·대진·노봉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을이지만,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동일한 행정구역에 속한 어달과 대진 그리고 지리적 여건상 공동의 생활권인 노봉을 어촌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시 대진생활권(어달·대진·노봉마을)의 고령화율은 어달 47%, 대진 41%, 노봉 52.9%로 초고령사회에 속하며, 특히 노봉마을은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다. 이는 한국의 평균 고령화율 18.4%(2023년 기준, 통계청, 2023)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중 대진생활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주민의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한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57.6%가 유질환자로 55%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진생활권 내에는 병·의원, 약국, 보건소와 같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8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혜 또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제한적이어서 고령의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진생활권의 주민들은 대체로 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차량이 없는 고령층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운송회사가 이용자 감소 등을 이유로 운행 횟수마저 축소하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층 대상 의료 서비스 수혜는 물론 생필품 구매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2차 생활권 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생활권 내 단독 가구(41.7%)와 부부 가구(26.87%)의 비율이 높아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인 1인 가구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심혈관질환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 돌봄만으로는 만성질환 관리나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주로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업의 경우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노동시간과 높은 작업강도로 인해 건강관리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관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어업의 특성상 대상 어종에 따라 작업강도가 달라지며, 어획량이 많은 시기에는 육체적 피로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환경은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만든다.

대진과 어달 주민은 현재 어촌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업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이 있는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근골격계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잡 어업에 주로 종사하여 어작업에 따른 직업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고령화됨에 따라 질병 관리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대진생활권에서는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전통적으로 노인을 돌보던 가족돌봄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비공식 돌봄체계에서 공식 돌봄체계(재가요양, 방문간호 등)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중

요한 배경이 되고 있지만, 공식 서비스조차 접근성이 낮아 여전히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앵커조직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초기 인터뷰와 간담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주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문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40.5%)이었다. 그 뒤를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28.6%)과 난방시설 미비(28.2%) 같은 지역 현안 등이 이었다. 단순히 병·의원과 약국 등이 없다는 물리적 의료 서비스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건강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생활권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의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돌봄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은퇴 간호사와
협업한 마을보건실
운영 과정**

2023년 3월, 4개월간의 대진생활권 전수조사를 마치고 동해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설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소와 사업 대상지 생활서비스 중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보건소 사업을 사업 대상지에 연계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보건소의 '이동보건소사업'을 사업 대상지인 대진과 어달 경로당에 연계하여 한방진료 및 활력징후 확인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일회성이긴 하나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획은 주민들에게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현재 동해시에는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가 남부권(삼화동)에 유일하게 있으며, 사업 대상지인 동해시 북부권에는 출장소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진생활권의 거점인 대진에 보건진료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거점화하고, 이를 통해 동해시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연결하며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촌마을에 학교의 보건실처럼 건강을 돌보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마을보건실'을 기획하고, 2023년 5월 마을보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

©앵커조직(마을보건실)사무국



마을보건실 가정방문서비스



마을보건실(앵커사무실) 내방서비스

고자 보건소를 통해 동해시간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동해시 소재 병·의원의 경우 현재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재직 중인 간호인력의 활용보다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은퇴 간호인력을 활용한 마을보건실 운영이 논의되었고, 시범사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퇴 간호사(이하 간호사)를 동해시간호사회에서 추천받았다.

2023년 7월에는 2명의 간호사(경력 33년 이상)와 함께 마을보건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운영 매뉴얼과 사용할 서식들을 만들었다. 그동안 동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앵커조직 사무국에서 대진생활권으로 연계하고, 간호사들은 마을보건실을 방문하는 내방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8월부터 마을보건실이 앵커조직 사무실을 임시마을보건실로 하여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마을보건실은 주 4일(월, 화, 수, 금) 운영하고 오전에는 내방자 서비스를, 오후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민전수조사자료를 통해 대진생활권의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주민, 질병 보유자(만성질환 보유자 포함)를 170명 선정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가정방문 서비스 초기에는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던 앵커조직 구성원이 간호사와 동행함으로써 거부감을 덜게 하였다.

간호사는 대진생활권 내 15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혈압과 당뇨 기록을 토대로 의뢰서를 작성한 후 병·의원에 연계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쌓아 온 경험과 뛰어난 관찰력으로 주민의 건강 상태

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부분 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마을보건실 내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함께 고혈압·당뇨 확인 및 만성질환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 간호사와 앵커조직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가구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동해시 U-CARE센터와 연계하여 응급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보건소의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사업’과 ‘치매예방관리교육’을 연계하여 기존 보건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현장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로 확장

2024년 1월 보건소와 업무협의를 거쳐 3월부터는 기존의 이동보건소사업은 물론 보건소와 연계하여 신규 민·관 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마을보건실은 동해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와 함께 ‘민·관 협력 레드서클(건강한 혈관)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어달·대진·노봉마을과 동해시 주민들의 고혈압·당뇨병 치료를 개선과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마을보건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달·대진·노봉마을 내 숨은 치매환자를 적극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시 치매안심센터와 ‘민·관 협력 치매위험 사각지대 제로 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명의 간호사는 인지선별검사 수행교육을 이수하였고, 앵커조직 구성원 전원은 치매파트너교육을 이수하여 앵커조직이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진행하고 동해시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하면 센터에서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를 완비하였다.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중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마을보건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2.8%로 나타나 대다수의 주민이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기타 의견으로 근력 강화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어 마을별 경로당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18회, 215명 참여)과 원예심리치료(8회, 94명)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을보건실은 단순한 보건·의

©동해시보건소 마을보건실사업팀



감염병 예방 교육



고혈압, 당뇨 관리 교육



마을보건실(어촌계사무실 이전) 개소식

료 서비스를 넘어 주민 간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마을보건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임시마을보건실로 사용하던 앵커조직 사무실이 협소하여 서비스 제공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대진어촌계 사무실을 마을보건실로 활용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해양수산과를 통해 어촌계에 전달하였다. 회의를 통해 어촌계 사무실을 마을보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어촌계 사무실을 정비하여 2024년 5월 22일 마을보건실 개소식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을보건실의 어촌계 사무실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을보건실이 어촌마을과 어업인을 직접 연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와의 협력을 통해 조업 중인 어업인에게도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특히 조업 후 귀가 전에 마을보건실을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받는 어업인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마을보건실이 간호사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관찰력을 기반으로 어촌마을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주민 진료와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활권 내에서의 사의 왕진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존의 ‘일차의료 왕진 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지만 이용자의 자부담률(30%)이 높아 이용을 꺼리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한의사회와 협력하여 2024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사회 한의사회인 동해시 한의사회가 여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 한의사회에 공식적으로 협력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회의와 사전답사를 통해 한의



원예심리치료



한의의료 봉사활동

의료봉사가 성사되었다.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이웃한 어촌마을 3개 동을 묶어서 한의의료봉사가 진행되었고, 총 739명의 주민이 한의진료와 처방약 제공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의료 서비스는 전문 한의사들이 직접 제공하였으며, 진료 이후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안내도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단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돌봄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평소 접근이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보건실의 역할과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보건실 운영 이후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높아져 1일 평균 내방자 수가 초기 2~3명에서 8~1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누적 내방자 수가 288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조업을 마친 어업인들의 방문이 내방자의 90%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어업인들이 건강관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병·의원에 의뢰한 사례가 7건, 만성질환을 관리 중인 사례가 170건이다. 2024년 6월까지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누적 방문 횟수는 720회이고, 응급안전 시스템을 설치한 18가구는 동해시 U-CARE 센터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4년 6월까지 치매인지선별검사 20건을 동해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결하여 치매의심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기획의 중요성과 남은 과제

동해시 대진생활권의 마을보건실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위해 마련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인프라이다. 특히 어업인들은 조업의 특성상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마을보건실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어촌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었다.

동해시 대진생활권의 마을보건실은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마을보건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운영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촌스테이션 조성으로 마을보건실 공간이 확보되면 동해시 보건소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마을보건실을 통해 생활권에 제공될 계획이다. 보건지소의 역할을 뛰어넘어 지금처럼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 시스템을 갖추려면, 마을보건실에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해시 보건·의료·돌봄 관련 조례의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문화를 구축하며, 돌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델이 다른 어촌 지역과 보건·의료 취약지로 확산되어 보다 많은 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통계청. (2023). 2023 고령자 통계.

수변문화 프로그램, 불 꺼진 항구마을에 문화를 더하다

손유진
(주)공유를위한창조 팀장

도시화된 어촌의 이면

장승포권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2개 행정동(洞)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대상지의 대부분이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점, 그리고 어업종사자가 전체 인구 1만 5,426명 중 어업종사자가 72명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장승포권역'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동쪽에 위치한 '장승포동'과 '능포동'을 의미한다.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승포동과 능포동은 과거 '장승포시(市)'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자 옥포조선소의 배후 지역으로 발전하며 도시화가 진행된 어촌이기도 하다.



장승포동(좌)과 능포동(우) 전경



©(주)공유를위한창조

장승포동, 능포동 인구 소멸위험지수 현황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거제시	1.72	1.58	1.43	1.28	1.12	0.89	0.84	0.715
	위험 낮음	위험 낮음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주의
장승포동	1.47	1.15	0.88	0.72	0.63	0.53	0.51	0.428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진입
능포동	1.27	1.03	0.86	0.71	0.59	0.48	0.44	0.357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진입	위험 진입	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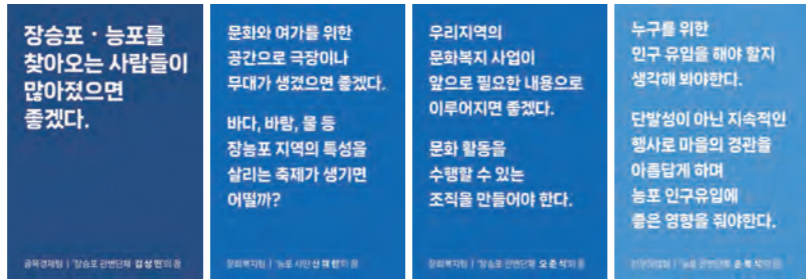
출처: 2022년 3월, 2023년 2월 읍·면·동 수치와 거제시의 2021년을 제외한 전 기간 수치는 이상호, 김필(2022.3.), 그 외 읍·면·동 수치는 KOSIS 인구통계 수치 활용해 도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장승포권역을 방문하는 이들로부터 '여기는 다 있네'라는 이야기들을 듣곤 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일 터이다. 실제로 장승포권역은 도보권 내에 편의점·대형마트·식당·세탁소·수선집과 동 주민센터가 있고, 배후에는 산이 자리하고 전면에는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3.165점(5점 만점) 수준이며 여가·문화, 복지, 교통, 체육, 의료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근로자 유출과 여객선터미널 폐업 등 관련 산업의 축소로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15%대로 거제시 관내 동 단위 지역 중 고령화가 심각한 동네이다. 이처럼 다 갖춰진 듯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문을 닫는 가게들, 점점 빛을 잃어가는 상점가가 있었다.

불 꺼진 항구마을의 꿈

이러한 장승포권역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역주민 수요 조사와 의제 발굴 과정에서 도출한 지역주민·상인·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 침체된 장승포권역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렀으면 하는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수변공원과 골목 및 폐가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즐길 거리와 이러한 즐길 거리를 창출하는 공간과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지역의 빈 공간들에 이른바 '즐길 거리'를 매개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에 따라 주변 상점가에 다시 활력이 돌았으면 하는 것이 장승포권역 사람들의 꿈이었다.



의제 발굴 워크숍 과정에서 도출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의 ‘근원’을 찾아 보면 결국 즐길 거리가 언급되었다. 장승포권역 시범사업의 방점이 ‘문화’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무언가를 구심점 삼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로 인하여 빈공간이 채워지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장승포권역에 사람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역자원 조사와 의제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항구와 이를 둘러싼 수변공간이었다. 장승포항과 능포항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변공간들이 있었으며,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들도 있었다. 능포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목적어항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변공원·해상데크·낚시공원 등 해양레저 기반이 갖춰져 있었고, 장승포항과 능포항은 남파랑길 20번 코스에 해당하는 ‘장승포 해안로(2.5km)’로 연결되어 있었다.



장승포, 능포 수변공간 및 배후 거점시설 위치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수변공간 만들기

이처럼 장승포와 능포는 지역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해안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어항 내에 해양레저 기능을 도입하여 방문 목적을 다각화하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앵커조직의 주 역할과 사회혁신프로그람의 방향성은 지역에 마련된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일상이나 방문객들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능포: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변문화행사

능포항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중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다. 입지 여건상 장승포를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능포항의 양쪽에는 능포수변공원과 능포낚시공원이 조성되는 등 다기능 어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변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차박’ ‘캠핑’ ‘낚시’ 등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나 쓰레기 문제로 곳곳에 ‘차박 금지’ 현수막이 걸리는 등 해양레저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지역의 매력으로 드러내기에는 장벽이 많은 실정이다. 지형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어 도보 접근성 또한 떨어져 지역축제 홍보 및 모객 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이미 조성된 해양레저 기반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법을 고민하였다. 사회혁신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사전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과 더불어 수변공간 체류시간 및 활용도를 증대하는 캠페인 ‘건전캠핑’, 능포낚시공원을 활용하여 개최된 ‘밖에서마켓(중고 아웃도어 용품을 거래하는 폴리마켓)’도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였다.

건전캠핑 캠페인은 능포동 지역축제인 ‘양지암 조각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캠페인 장소는 그간 차박금지로 인하여 폐쇄되어 있던 능포수변공원 잔디밭을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임시로 개방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차박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해당 활동 이후 능포수변공원은 야외 영화제와 거제 정원산업박람회 등 수변공간의 장점을 활용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장승포: 수변 문화 콘텐츠 발굴 거점

장승포동은 국제무역항인 장승포항을 중심으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형성



팝업 공간 DIT



씨푸드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수변문화주간

어촌스테이션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례

되어 있다. 1965년 개항장으로 지정되어 장승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지심도·외도·해금강 여객선터미널을 보유하여 인접 지역의 경제·관광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해당 기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 내 인구 또한 2016년 마전동과의 통합으로 1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5년간 인구 절반이 떠나가면서 ‘불 꺼진 항구’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불 꺼진 항구를 다시 밝히고자 장승포동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늘카페, 커뮤니티센터, 장승포차, 송구영신 소망길, 장승포 유자막걸리 등 지역 내 체류를 도모하는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이중 실제 운영 주체가 존재하며 사업 운영 중인 시설 외에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사업기간 내 앵커조직이 위탁 운영 중인 거점공간 청년문화거점을 최대한 활용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청년문화거점은 사회혁신프로그램 ‘팝업 공간 DIT(Do It Together)’를 통해 사회혁신프로그램 및 어촌스테이션 조성 전의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DIT 과정에는 목공, DIY(Do It Yourself), 공간 기획에 관심 있는 거제시·경남·부산권역 청년과 지역민들이 참여하였고, 이후 관내·관외 링커조직 활동 거점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 ‘씨푸드 크리에이터 선발대회’를 비롯한 수변문화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 지역 내 창작자들과의 협업으로 바다와 해양 환경 주제의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2주간 선보이는 ‘수변문화주간’을 개최하여 동일 관심사 및 주제의 창작자 8인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마지막 4일간은 매일 창작자들의 ‘바다’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5명의 창작자는 개발 중인 체험 프로그램과 기념품에 대한 창작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개발 중인 상품과 체험을 시연하는 등 협업 커뮤니티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장승포동 내에서도 발길이 좁처럼 이어지지 않는 거리에 창조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주체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으로

현재 장승포권역은 수변공간들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공간과 기능을 논의하는 시점에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발굴한 잠재적 활동 주체, 링커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승포권역을 활동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앵커조직에서는 과거 교역과 어업의 중심지였던 항구 및 주변 일대를 ‘머물고 싶은, 가고 싶은 수변공간’으로 재정의하고, 바라보기만 하던 어항과 그 주변 공간들을 보다 일상 가까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매개체를 발굴해 왔다. 그간 축제·행사·체험 형태로 수변문화를 공유해 왔다면 앞으로는 상시로 이를 경험케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 수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링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승포·능포 지역민들에게 익숙하고, 언제나 일상 곁에 자리한 수변공간들은 이 지역의 매력적인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다.

창작자들에게는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으로, 지역민들에게는 편안함 속에서 일상의 충만감을 즐기는 장소로, 방문객들에게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경관으로. 이는 박정일 장승포권역 앵커조직 총괄 PM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거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의 수변공간들이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 기반으로 작동하려면 ‘거실’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수변공간들이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상호, 김필, (2022.3.).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관협력사업의 시도와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어촌은 그동안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이라는 일터와 생산지로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미미했다. 어촌·어항재생을 목적으로 시행한 어촌뉴딜300사업도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한 어항정비사업과 여객시설 정비에 집중해 왔다. 지역주민들은 ‘자녀들은 도시로 떠났고 고령자들이 어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학교는 문을 닫아 아이들 목소리 들은 지도 오래, 하루에 한 두 번 들어오는 버스나 배편으로는 병원 한 번 가기도 어렵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한분 두분 요양원으로 떠나 빈집은 늘어만 간다’, ‘대도시로 떠난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고 싶어도 즐길 거리도 없고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는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도 4개소로 출발한 해양수산부의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자 그동안 국비 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화된 전략을 수립

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적용해 보면서 해당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검증하는 사업이다.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실행해 보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정해 간다는 측면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실험적이고 혁신적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주체가 앵커조직이다. 3년 차에 접어든 시범사업은 이제 국비지원 종료 시점을 1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모니터링 주체로 참여한 필자의 시각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전문조직 참여로 실행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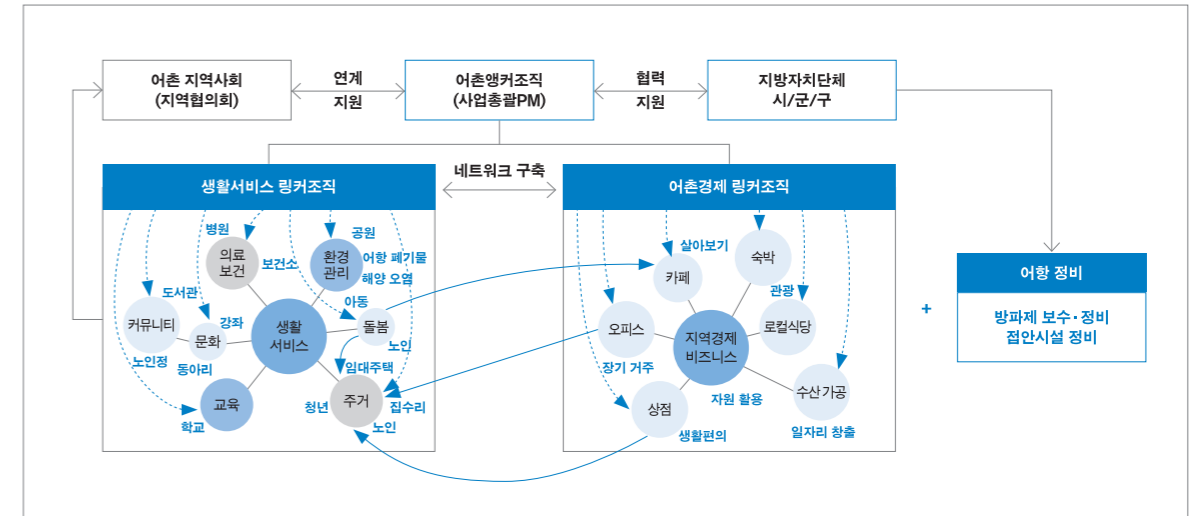
사회혁신프로그램은 크게 생활서비스와 경제활동 분야로 기획하되, 생활서비스 공급 자체가 일자리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분야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사업시행지침에는 가장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핵심의제를 2개 이내로 정해서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앵커조직은 의료·돌봄·문화·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주민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기관, 수협, 어촌계 등 관련 주체 심층면담을 진행해 어업을 비롯한 소득활동은 어떤지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수행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팀이 조사한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성 분석, 지역경제 여건 분석, 인구변화 동향 및 주변 여건 분석 등을 종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어촌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와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인지, 공간이 부족해 서비스를 제공 못 하는 것인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전문가가 부족한 것인지 등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과정을 거쳤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어업생산성이 낮은 것인지, 어업인들의 고령화 문제인지, 판로가 없는 것인지, 어업 이외의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등 지역현안을 진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 자체가 용역회사에 의존해 전

국 어디서나 유사한 사업을 제시하는 지역활성화 사업과 차이가 있다.

핵심의제 선정 과정을 거쳐 동해시는 마을보건실, 거제시는 수변문화공간, 고흥군은 공정여행을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정하였다. 동해시 마을보건실은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보건복지부 사업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뿐 아니라 조업을 마친 어민,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과 서핑객 등의 방문진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어촌에 특화된 마을보건실의 기능을 갖추어 가는 중이다. 동해시는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가 시범사업 대상지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건강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시범사업으로 어촌스테이션이 조성되면 마을보건실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동해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실험단계를 거쳐 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단체·지역의료봉사단체 등 참여주체가 확대되었고, U-Care 사업을 연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다.

거제시 사업대상지는 어항 배후지역이 상업지역과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으로 다른 어촌지역에 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어민들은 장어같이 소량으로 잡히는 원물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인들은 항구 기능 쇠퇴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방문객이 줄어들어 새로운 활력을 원했다. 이에 지역경제와 문화활동을 접목한 수변문화 프로그램을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다. 수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화기획자와 지역활동가들이 수변문화주간을 꾸리면서 앵커조직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영화상영제를 열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인 기업이나 영세한 조직이 모이면 대도시나 서울에 의존해 왔던 큰 규모의 마케팅과 브랜딩 관련 일거리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다.

고흥군은 공정여행을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기획하면서 지역의 주 생산물인 멸치를 가공하여 온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낚시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매장과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법인 설립도 준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매는 식품 판매 관련 인증절차와 시설설비 투자가 마을주민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원물을 공급하고 멸치 엑기스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한 링커조직 연결 예시
출처: 해양수산부(2021, p.5)를 참조, 보완

를 최고의 품질로 가공하는 일은 지역의 전문업체와 협업하기로 하였다. 공정여행과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방식도 실험하는 중이다. 식당은 지역주민들이 낚시객의 생선을 손질해주거나, 낚시객과 어민들이 조업 활동 중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였다.

시범사업 모두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지역 내 전문조직이 링커조직으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는 중이다. 이처럼 한 명의 전문가가 다른 한 명을 추천하고 또 다른 조직을 연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 전문인력이 그물망처럼 엮여 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어촌계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

앵커조직은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역의 여러 활동단체와 만나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은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초기에는 어촌계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어촌계의 반감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범사업이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어촌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동해시는 마을보건실로 활용할 어촌스테이션이 준공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필요한 시점에 어촌계가 비어 있는 어촌계 소유 공간을 내주었다. 거제 시범사업 지역 또한 어촌계가 운영하는 바다목장 공간을 수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동의해 주었다. 고흥군은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촌스테이션을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모두의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많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민 갈등이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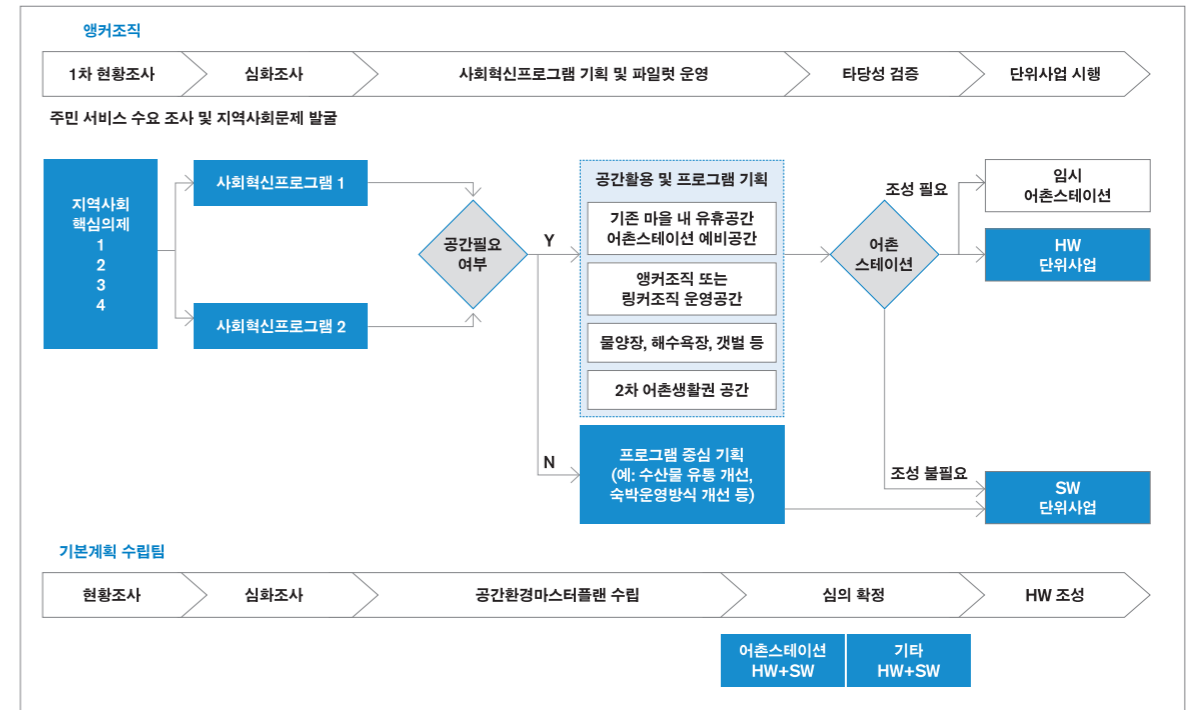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역할 정립과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앵커조직은 주민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고흥군은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사업대상지의 우수한 해양경관, 어업인들이 잡아 올린 양질의 멸치, 오랜 시간의 썬가 쌓인 마을농악대를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마을농악대는 연말연시 해맞이 축제의 흥을 제대로 돋우었고 질 좋은 수산물로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었다. 주민들이 늘 해 왔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전문가와 주민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동해시는 마을보건실을 운영하면서 고령자와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경제활동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나의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지역에 필요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경험이 쌓여 사업을 기획한 앵커조직뿐 아니라 주민, 사업에 참여한 링커조직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중이다. 이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유휴공간의 활용과 어촌스테이션 규모의 적정성 검증

시범사업은 거점시설을 조성한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 지역활성화 사업과 달리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많은 거점시설이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로 조성되거나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과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해 조성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에 사업 시행시점에는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할 경우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해시는 동해시 소유 어항 부지에 있는 어민복합센터를 어촌스테이션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시설은 어촌계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방치되어 있어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아야 할 시점이었다. 마을보건실은 어촌스테이션의 1층에 배치하였고 그 외에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어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 작은 식당과 카페 공간을 계획하였다. 이는 서핑객, 낚시객,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한 세부사업 확정 과정
출처: 서수정(2024, p.38)



고흥군 앵커조직 활동 모습



© 2024 고흥군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흥 시범사업지역은 유휴공간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국유지를 어촌스테이션 부지로 정하였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촌스테이션은 공정여행에 더해 주민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낚시객 대상 생선 손질 서비스와 도시락 제작 등에 필요한 공유주방, 주민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실, 지역에 찾아오는 봉사단체가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등의 기능을 어촌스테이션에 담았다. 두 지역 모두 상시 이용객과 향후 이용대상지를 추정하여 적정 규모의 어촌스테이션을 계획하였다. 거제시 시범사업대상지는 다기능 국가어항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지역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수변광장이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어촌스테이션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사회혁신프로그램은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능과 프로그램,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의 향후 과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어촌스테이션이 조성되기 전에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동해 퇴직 간호사처럼 지역에 숨어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기도 하고, 고흥의 마을농약대처럼 지역공동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었다. 또한 거제시처럼 건축물이 아닌 수변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앵커조직이 기획자이자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실

행주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아직 실험적 성격이 강하나 공공재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실험으로 끝날 사업에는 재원 투입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앞으로는 실패를 통해 좀 더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의 특성상 일부 업무는 링커조직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벗어난 계약 행위가 어려워 별도 선정절차는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또한 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성과를 검증해야 하므로 계획수립절차가 늦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지원사업 선정 이전에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선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사업대상지인 1차 어촌생활권을 넘어 2차 어촌생활권, 더 나아가 인접한 어촌생활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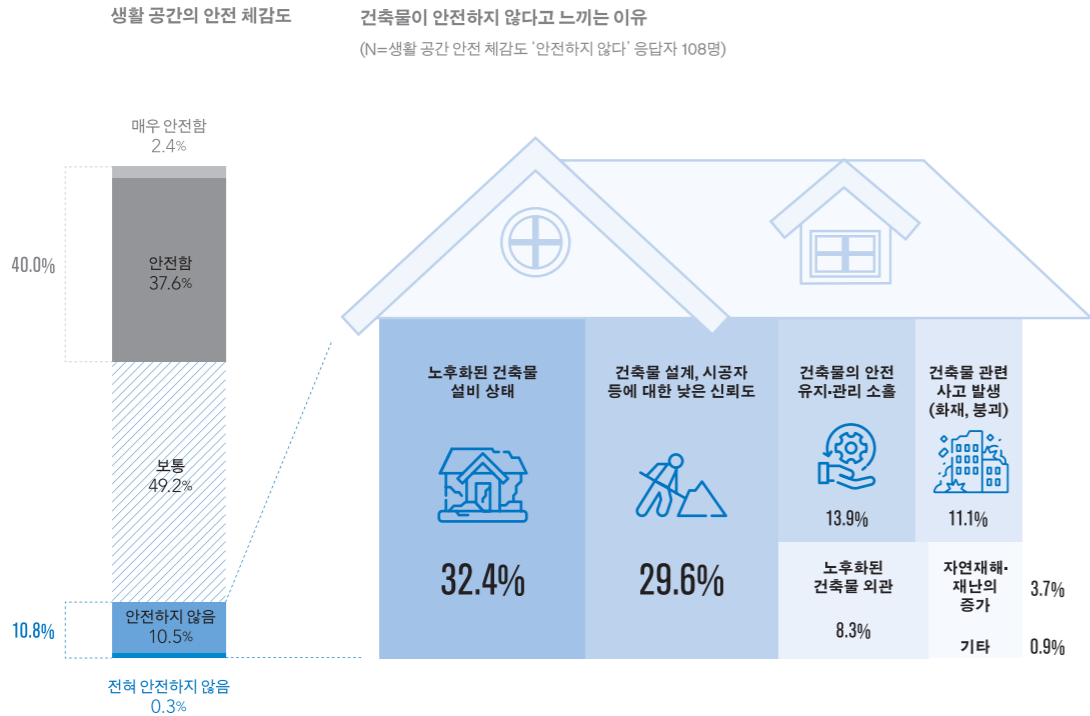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2023.12). '23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 2 서수정. (2024). 어촌신활력(유형2) 앵커조직 사업운영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워크숍 발제자료. 건축공간연구원.
- 3 해양수산부. (2021). '22년도 Post-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계획.
- 4 해양수산부. (2024.8).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건축물 안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동향을 파악하고자 주제별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도에는 일상생활 속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건축물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의 일부를 통계자료실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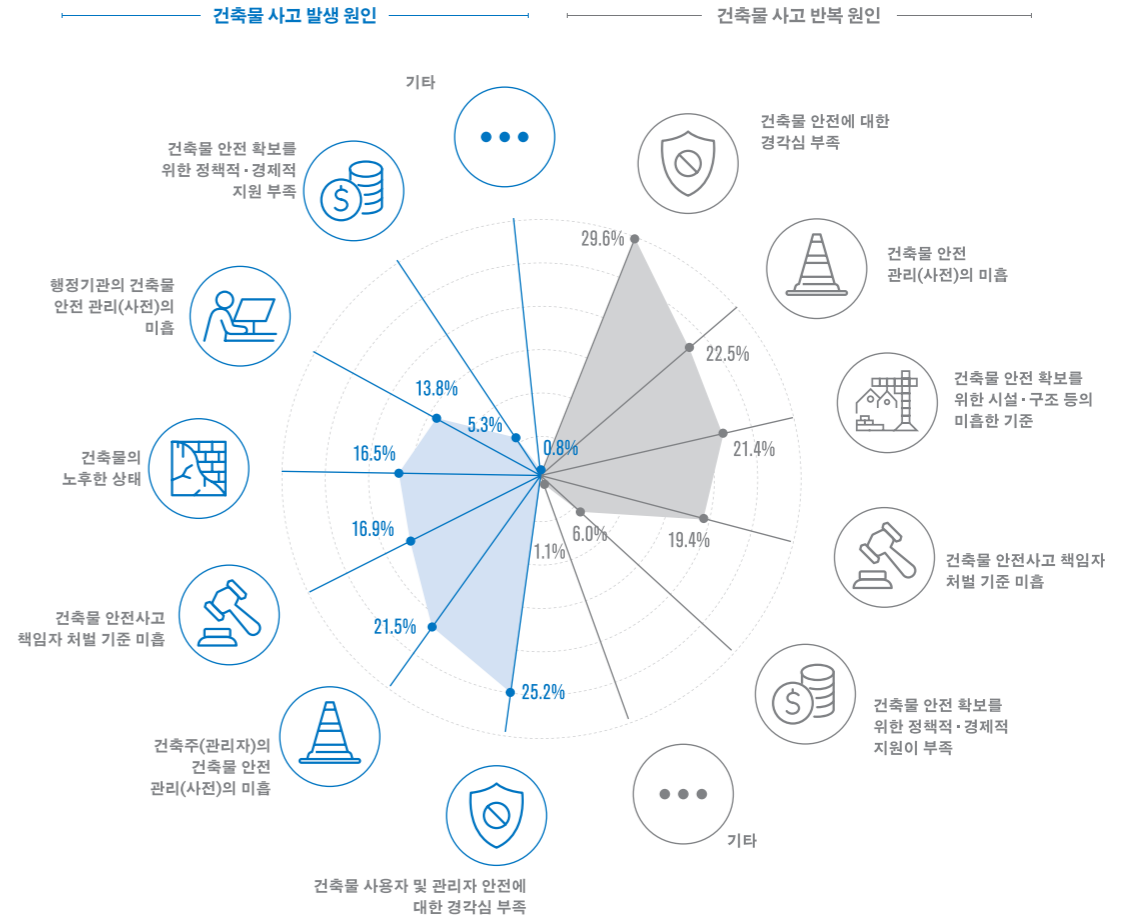
Q 국민들은 평소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낄까?



A 생활 공간은 '보통'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노후화된 건축물 설비 상태'와 '설계 및 시공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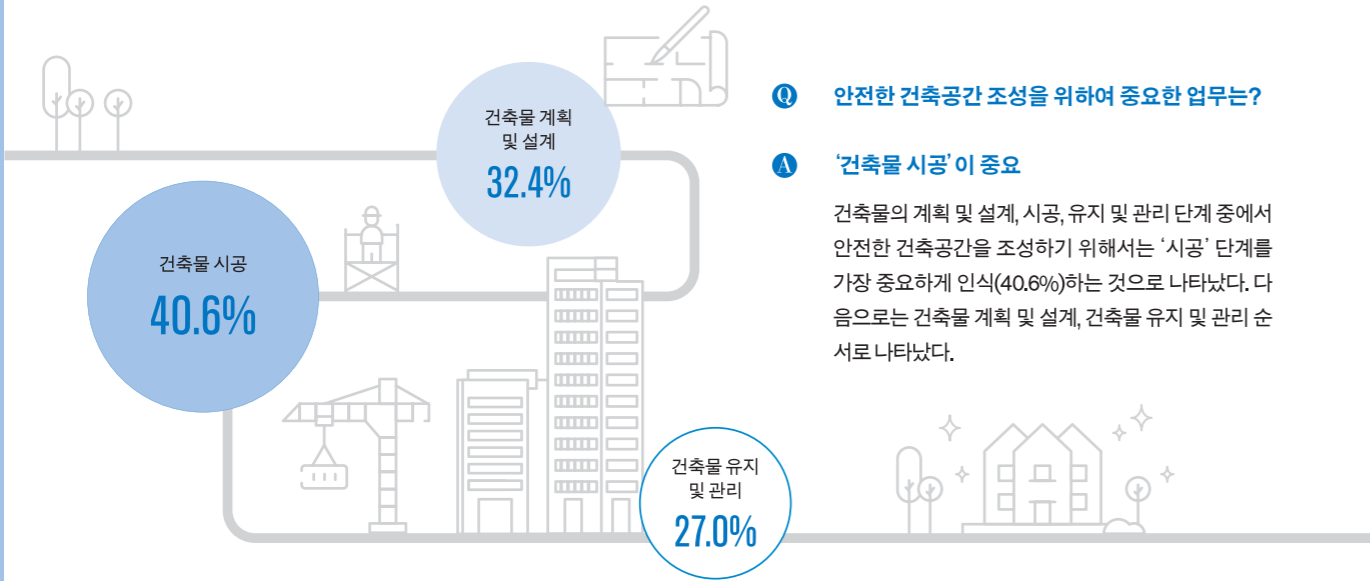
국민들은 평소 생활 공간의 안전 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비중(49.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그보다 적은 40.0%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노후화된 건축물 설비 상태(32.4%)'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축물 설계, 시공자 등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자연재해·재난의 증가' 응답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노후화된 건축물 상태처럼 가시적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인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Q 건축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A '사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건축물 사고의 원인으로는 '건축물 사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건축주(관리자)의 건축물 안전 관리(사전)의 미흡' 응답이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노후화된 건축물 설비 상태'가 가장 많았지만,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건축물의 노후한 상태'가 네 번째로 나타났다. 건축물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았는데,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9.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건축물 안전 관리의 미흡과 건축물 시설·구조 자체의 미흡한 기준을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건축물 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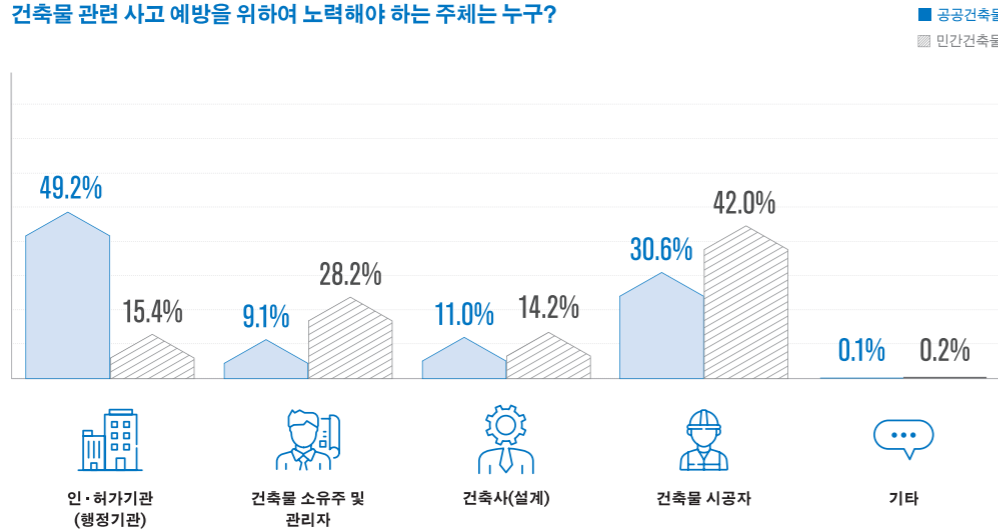


Q 안전한 건축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요한 업무는?

A '건축물 시공'이 중요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 단계 중에서 안전한 건축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40.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계획 및 설계, 건축물 유지 및 관리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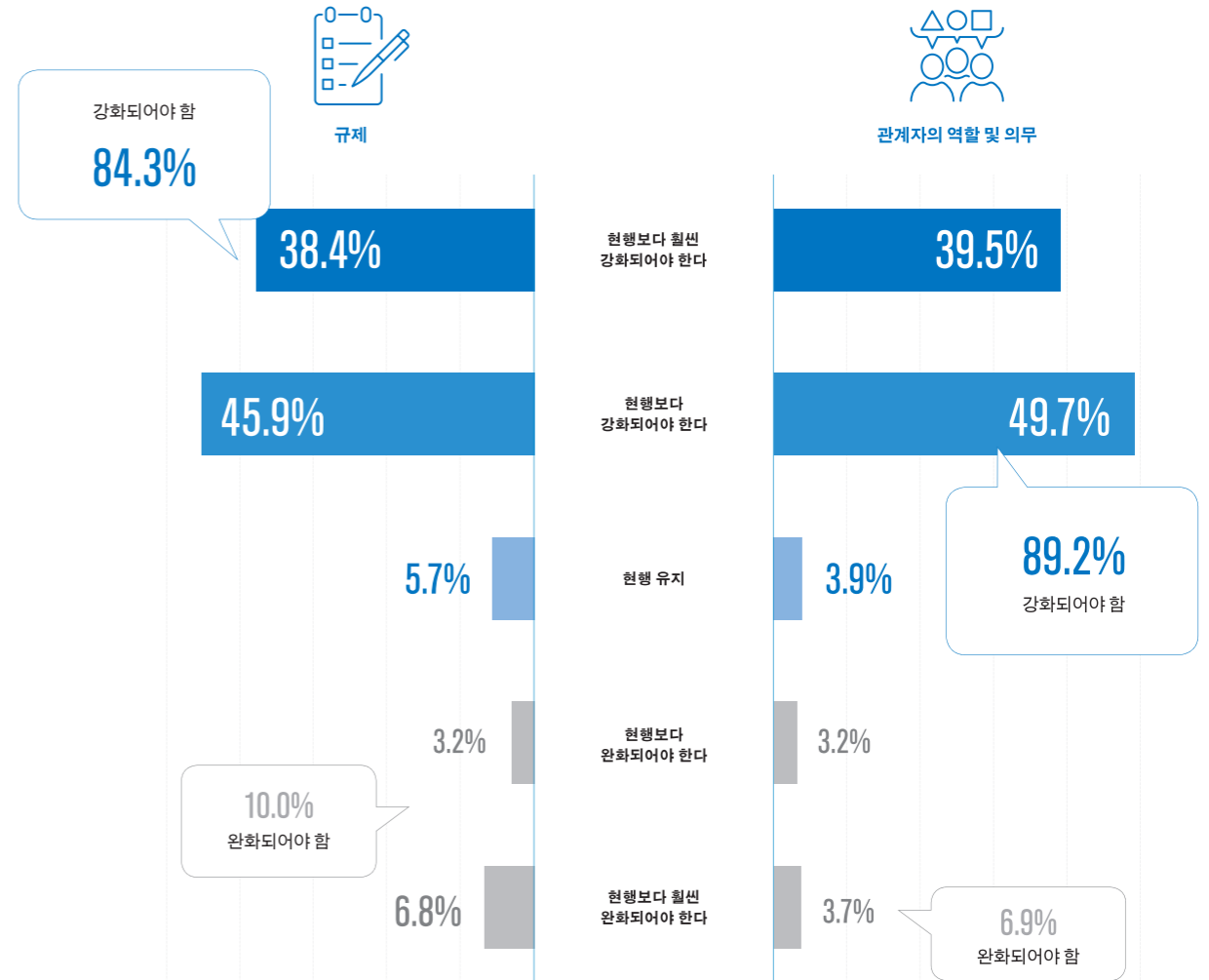
Q 건축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



A '건축물 시공자',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 '인허가 기관'의 역할이 중요

건축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주체를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시공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공공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민간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 시공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건축물 관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 시공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는 얼마나 강화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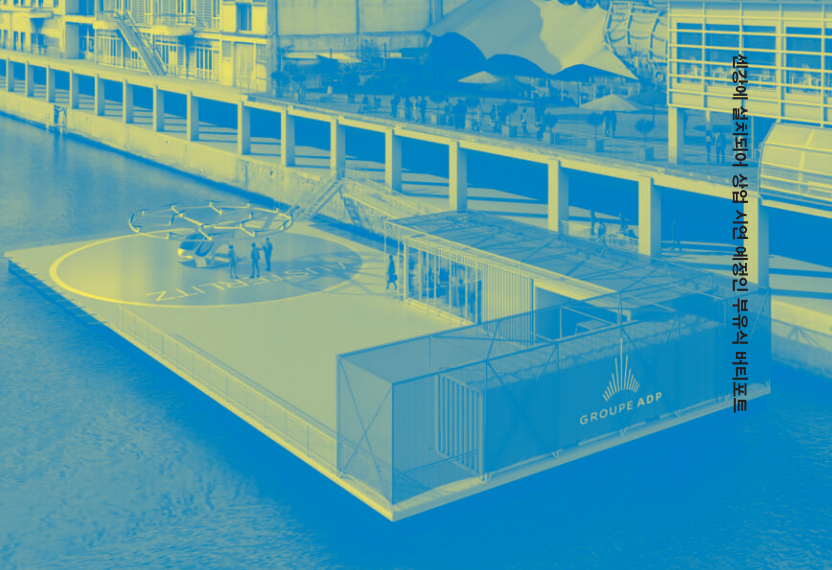
A 규제 및 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는 모두 강화될 필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물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84.3%로 나타났으며, 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2%로 나타났다. 규제의 강화보다는 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주체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번 호 해외동향에서는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위해 여러 주체가 협의와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네덜란드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전 세계, 많은 도시가 UAM 상용화를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올림픽 기간 UAM 시범 비행에 나섰던 파리시의 시도를 자세히 전한다.

국내동향으로는 '건축기획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례에서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는 건축기획을 위해 이를 보다 통합적이고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본다.



생강에 설치되어 상업 시연 예정인 부유식 버티포트



포르토 모손 해안 개선 및 항구 재개발 프로젝트



서울시 새물동에 조성된 진디광장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해외

협의·조정에 기반한
암스테르담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046

파리 도심 UAM
시험 비행과 센강변 부유식
버티포트 설치 시사점
050

국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건축기획 시범사업
추진의 의의와 효과
055

협의·조정에 기반한 암스테르담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을 정교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통해 계획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이뤄내고,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도시개발의 방향으로 구체화한다.

파리 도심 UAM 시험 비행과 센강변 부유식 버티포트 설치 시사점 | 많은 국가와 대도시들이 UAM 서비스에 대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의 UAM에 대한 도전은 가장 앞서있고 UAM의 상용화를 미래에서 현실로 성큼 이끌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건축기획 시범사업 추진의 의의와 효과 | 센터가 건축기획 대행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구상, 방침 설정, 예산 검토, 부지 활용방안, 소요공간프로그램 등에 대해 센터 내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검토하고 이를 설계지침서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협업·조정 기반한 암스테르담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이세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3기 신도시부터 입체적인 도시공간을 계획하고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통해, 추상적 개념의 도시계획부터 구체적인 공간 설계단계까지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 운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업과 조정 기반의 도시공간계획 수립

PLABERUM을 통한 단계적 의사결정체계 마련

‘PLABERUM’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한 의사결정 및 협업 체계이다. 다시 말해 PLABERUM은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에 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 정립한 체계(system)라고 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은 과거 1980년대부터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존의 도시공간을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PLABERUM을 운영하고 있다. PLABERUM은 초기에는 7개의 의사결정 단계로 구성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단계를 통합하여 4단계로 간소화하였다.

첫 번째는 ‘탐색 및 전략단계’로 개발사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담은 개발원칙서 또는 전략결정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단계’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부동산 시장 변화를 고려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이해원 외 (2024)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고,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사업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교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진행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때 기반시설계획과 함께 토지 용도와 블록 규모, 개발 밀도 등을 구체화한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내용과 결정사항을 담아 도시계획서(Stedenbouwkundig plan) 또는 SPvE**를 작성하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승인받은 도시계획서는 개발 주체 선정 등 본격적인 투자 결정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암스테르담이 초기 단계부터 입체적인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데는 특유의 공영토지개발방식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암스테르담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용과 개발에 따른 토지 매각 및 환수비용 추산을 주요하게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블록 규모와 개발 밀도 및 토지용도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고 단계를 거듭하면서 점차 구체화한다.

끊임없는 검증 과정을 거쳐 계획 고도화

암스테르담 PLABERUM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단계별 계획수립의 기간과 협의조정 과정에 기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 기간은 제각각이며, 평균적인 기간조차 산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PLABERUM은 공식적으로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단계 사이에 수많은 비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검증과 조정 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계획의 검증 과정은 계획 간 결속력을 높이고 정합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며, 계획의 완결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 지구 차원에서 물리적 디자인을 표현하는 계획 도구로 ▲전체 계획의 맥락 가운데 해당 계획이 차지하는 위치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 구성의 기본원칙 ▲녹지, 교통, 주택, 공공공간, 가로 등의 부문별 계획 등을 정리하여 담는다(이해원 외, 2024, p.157).

*** 이러한 이유로 암스테르담시 내부에서는 도시계획서가 투자계획서로 통용되기도 한다.

PLABERUM 단계별 의사결정 사항 및 결정권자

2006년 이전	텍스트 기반 계획			도면 및 시각적 이미지 기반 계획			
	0	1	2	3	4	5	6
의사결정 사항	기본 지침 (Starting Note)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원칙 각서 (Memorandum of Principles)	도시계획서 (Stedenbouwkundig plan), SPvE	도시설계 상세 (Urban Design Plan)	계획 실현 (Implement)	유지·관리 (Maint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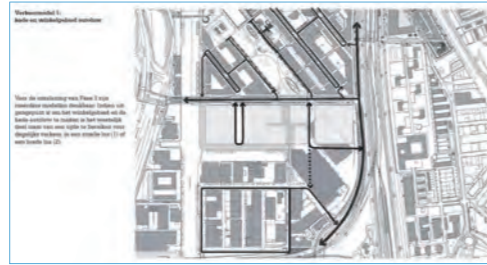
2006년 이후	텍스트 기반 계획	도면 및 시각적 이미지 기반 계획		
	1	2	3	4
의사결정 사항	탐색 및 전략 (Exploration & Strategy)	조사 및 타당성 (Research & Feasibility)	설계 및 투자 결정 (Program and design & investment decision),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행 (Excution)
결과물	개발원칙서, 전략결정서 (Policy Note)	조사 보고서 (Project Note)	도시계획서 (Stedenbouwkundig plan), SPvE, 투자결정서 (Investment Note)	



의사 결정권자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시의원이 최종 결정
	시장 및 시의회 동의 필수 ★



주요 상업가로 구성 시물레이션



교통 흐름 시물레이션



개발 밀도 시물레이션

출처: Gemeente Amsterdam (2020, p.56, p.64, p.103, p.111)



계획 검증 시물레이션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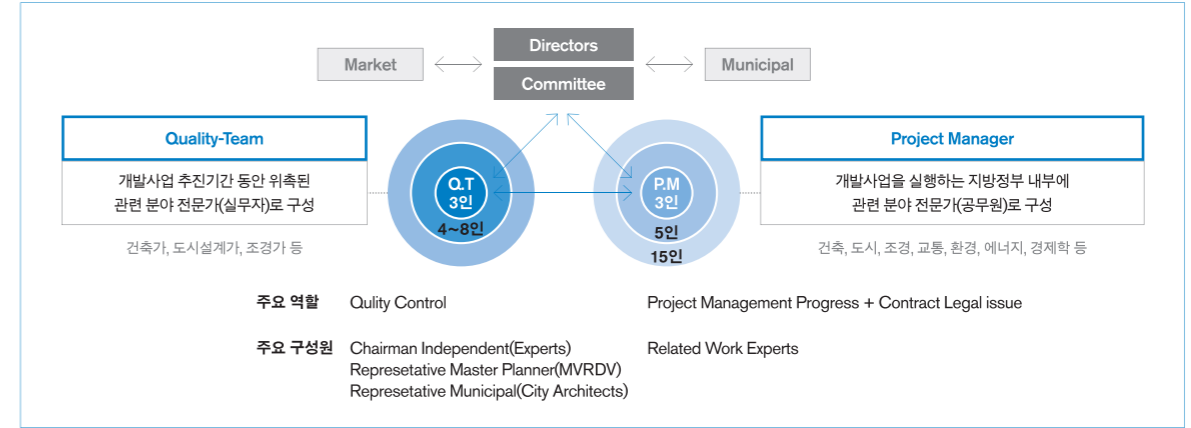
Q-team을 통한 더 좋은 도시공간 구현

디자인 설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Q-team 운영 암스테르담은 앞서 PLABERUM 3단계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서 또는 SPvE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담긴 아이디어를 실제 도시공간으로 구현하고 더 좋은 계획으로 구체화하고자 'Q-team'을 운영하고 있다. Q-team은 Quality Team의 약자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 및 설계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해 Q-team은 더 좋은 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다양한 주체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 과정을 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Q-team 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의 도시건축계획 및 사업 전

반에 걸쳐 운영되며, 공영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민영 개발사업에서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Q-team에는 해당 사업의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부터 도시·건축·조경 분야 실무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며, 여러 층위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사례인 하이드파크(Hyde Park) 개발사업은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주거 및 업무 단지 개발사업 중 하나로, * Q-team을 3개 층위(ring)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층(ring)은 가장 핵심으로 '마스터플래너

* 하이드파크 개발계획 개요(이혜원 외, 2024, p.165)
 - 대지면적: 400,000m²
 - 주요 기능: 주거(4,000세대) 및 복합용도
 - 참여주체: (사업시행자) 할렘머메어(Haarlemmermeer) 지방자치단체, Hyde Park 개발사 (계획수립자) 디자인전략계획: Urhahn, Dijk & Co Landscapsarchitecture 도시건축 통합계획: [MP] MVRDV, [블록별 PA] Barcode, Team V, MVSA, Manuelle Gautrand, Studio Nine Dots, INBO 등



하이드파크 개발사업 Q-team 관계도
출처: 이혜원 외(2024, p.163)

(MVRDV),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할렘머메어시청 도시계획국),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대표' 3인으로 구성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유관부서 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Q-team을 운영한다.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계획으로 발전

Q-team은 보통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 단위에서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모두가 합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하이드파크 개발사업의 경우 블록별 상세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대해 다수결에 의한 결정방식이 아닌 조정을 통해 전원 합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운영과 실제 작동에 지향점과 목표 설정

Q-team은 조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실제 공간 단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마스터플랜을 실현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 발전시킨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커뮤니티 조성계획 등 도면상의 도시공간이 우리 삶에서 실제 작동하는 도시공간으로 구현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에 대해 Q-team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간다.

나오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을 정교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통해 계획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이뤄내고,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도시개발의 방향으로 구체화한다. 설계 공모 당선 이후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1년이라는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1 이혜원, 백선경, 이세진, 임유경.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 Gemeente Amsterdam. (2020). Bijlagen Stedenbouwkundig Plan Amstelkwartier 3e fase: OverAmstel. Amstelkwartier.

파리 도심 UAM 시험 비행과 센강변 부유식 버티포트 설치 시사점

남성우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전 세계가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에 열광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도심의 자동차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의 해결책으로 UAM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3년에 UAM의 실증과 시범운영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5년부터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UAM 운행 실증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 파리는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관계자들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상업화된 UAM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파리는 UAM 상용화를 위해 1년 6개월간 퐁투아즈(Pontoise) 테스트베드에서 체크인 및 기체 탑승 등 여객서비스, 여객터미널 설치 운영, 공역 통합 및 충돌 해소를 위한 비행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많은 국가와 대도시들이 UAM 서비스에 대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의 UAM에 대한 도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고 UAM의 상용화를 미래에서 현실로 성큼 이끌었다. 그리하여 연구원에서는 2024년 8월 프랑스 파리 현지지를 방문하여 UAM 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는 파리 올림픽 기간에 진행된 UAM 시험비행과 버티포트 설치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파리시 UAM 로드맵과 도심 버티포트의 개발 개요

파리시의 UAM 로드맵

프랑스는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 파리 지역 하늘에서 최초의 eVTOL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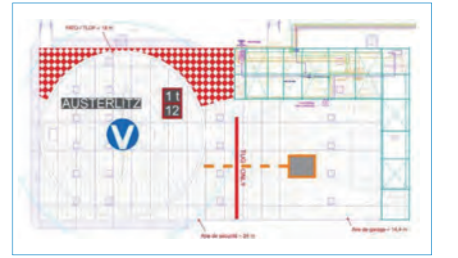


파리 지역 UAM 운항 노선, 버티포트 위치 및 로드맵
출처: Groupe ADP(2023),
<https://presse.groupeadp.fr/uamparis/?lang=en>



센강에 설치되어 상업 시연 예정인 부유식 버티포트

출처: Scerri(2023), <https://verticalmag.com/opinions/will-paris-see-a-floating-vertiport-for-evtol-trials-in-2024/>



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민간 항공청(DGAC)은 항공서비스사인 그룹 ADP(Groupe ADP), 기체제조사인 블로콥터(Volocopter)와 함께 파리 올림픽에 맞춰 UAM 서비스를 시작하고, 파리 지역의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 추가하고자 하였다.

파리의 2024년 UAM 운항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항로가 포함되었고, 이렇듯 초기 다섯 곳의 버티포트를 시작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파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UAM 항로로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리 샤를 드골 공항 ↔ 파리 르 부르제 공항: 유럽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을 연결하는 항로
- 오스테를리츠 바지(Austerlitz barge) 버티포트 ↔ 파리 헬리포트: 인구밀도가 높은 파리 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항로
- 파리 헬리포트 ↔ 생시르레콜(Saint-Cyr-l'École) 비행장(베르시유): 관광지를 활용한 잠재적으로 검증된 경로

도심 버티포트의 개발 계획

2022년 11월 파리의 UAM 상용화를 위한 시작으로 퐁투아즈(Pontoise)-코르메유(Cormeilles) 비행장에서 eVTOL 여객터미널 테스트베드를 개장하였다. 이 테스트베드에서 실제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들을 실증하는데, 탑승을 위한 보안 및 체

크인 프로세스와 기체의 지상 이동 절차 및 충전 작업 등을 포함하여 기체 이착륙과 비행 차원에서 음향 및 진동 영향 분석, 항공 공역에 대한 충돌 해소 시뮬레이션 등을 실증하고 있다.

파리 지역 다섯 곳의 버티포트 중 네 곳은 비행장과 헬기장을 활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한 곳은 Cité de la Mode et du Design 건물에 인접한 센강에 부유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 부유식 버티포트는 약 740m² 규모로 승객 체크인, 대기실, 화장실이 포함된다. 또한 eVTOL 배터리 충전 장소는 컨테이너를 활용한다.

이 부유식 버티포트는 블로콥터 기체 사이즈를 참고하여 버티포트 설계의 기준이 되는 D 수치를 12m(39ft)로 정하고, FATO의 크기를 18m로 설정하였다. 최대 이륙중량은 2,200파운드(998kg), 순항고도는 150m(500ft)로 설정하였다.

상업 시연은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항공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되며 시간당 최대 3회 왕복 운행된다. 시연 기간 중 약 5,000번의 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시험 비행

파리 근교에서의 시험 비행

당초 파리 도심에서 상업화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

였던 계획이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비행기체의 안전 인증'을 최종 획득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상업화 서비스에 활용코자 한 블로콥터사의 eVTOL 기체의 엔진 인증이 늦춰지는 문제로, 예정된 도심에서의 비행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4년 8월 8일 파리 올림픽 기간 중 블로콥터의 eVTOL 기체가 파리 근교 생시르레콜 비행장에서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eVTOL 운영 검증 단계로서 유인 탑승 및 조종을 통해 비행 기동, 지상 처리, 항공 교통 관제와의 통신, 배터리 충전 및 관리, 버티포트의 운영 등을 실험하는 실증적인 테스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생시르레콜 비행장에 설치된 버티포트 및 탑승수속 관련 시설

버티포트는 기존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 육상형으로 조성하였으며, 기체 탑승 수속 등 서비스 처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험 비행 때 운영하였다. 이 부대시설은 건축물로서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았다.

버티포트는 UAM 수직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2개소와 탑승 및 수속 등을 위한 부대시설, 그리고 기체를 충전하는 충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버티포트

내부에는 기체 탑승 수속 및 운항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공간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입구와 입구 홀, 대피 출구로와 출구 구성
- 탑승 수속과 운항 정보 관련 공간으로서 출발 대기실 조성
- 버티포트 개발 및 운영실을 설치하여 지원 공간 마련
- 부속시설로서 정비실, 대피실, 옷 보관소, CCTV실, 화장실 설치
- 기타 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 설치: 휴대용 소화기, 수동 화재경보장치, 타입 4 경보기, 전기 배전반, 전원 차단기, 정보 서버, 비상 정지 버튼 등

그랑 트리아농에서의 2차 시험비행

파리 올림픽 기간 중 생시르레콜 비행장에서의 1차 시험 비행에 이어 8월 11일에 베르사유 궁전 내 그랑 트리아농(Grand Trianon)에서 진행한 2차 UAM 시연 비행 장소를 방문하였다.

베르사유 궁전은 세계적 관광지로 UAM을 활용한 관광 노선을 신설하고 운영한다면 이동수단으로서 활용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심과 인접한 거리 내에 대규모 관광지와 오픈스페이스가 있을 경우 UAM의 전략적 노선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징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버티포트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Saint-Cyr-l'École 비행장에 설치된 버티포트와 내부 탑승 관련 시설



내부 시설



그랑 트리아농 및 베르사유 궁전 주변 전경



외관 전경

센강변 부유식 버티포트 설치

올림픽 기간 센강변 오스테를리츠 지역의 부유식 버티포트의 이전

종전에 오스테를리츠 지역에 설치한 부유식 버티포트는 올림픽 기간 중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도심에서 동쪽 지역인 샤랑통(Charenton)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파리 시청과 지역 환경 당국의 불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이 버티포트는 올림픽 개막식 시간을 위해 샤랑통으로 옮겨진 후 2024년 12월까지 파리 13구에 다시 설치될 예정이다.

기 설치한 부유식 버티포트는 파리 13지구 내 오스테를리츠 지역 주변의 센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해당한다. 파리 내 도심 지구의 대부분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UAM 운항을 위해 기존 허가·운영되고 있는 헬리콥터 항로를 준용하여 비행토록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선은 오스테를리츠 위치에서의 부유식 버티포트가 적정한 입지이며, 파리의 복잡한 도심에서도 고층 건축물이 없는 도시 형태를 고려할 때 강변에서 도심으로의 이동을 위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사료된다.

샤랑통 지역으로 이전한 부유식 버티포트 현장 방문

파리 중심부인 오스테를리츠 지역에서 올림픽 기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유식 버티포트를 이전한 지역은 파리 남동부 샤랑통 지역의 정박장으로, 외곽 지역에 안전하게 이동·보관 중이다. 정박 현장 방문 시 운영·관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룹 ADP 관계자들이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보안을 유지하는 시설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룹 ADP가 제시하고 있는 오스테를리츠 버티포트 운영 일정상 9월경 버티포트를 샤랑통에서 오스테를리츠까지 이동해야 하고, 비행 허가가 올해 말까지로 기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센강변에서 UAM 택시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치며

UAM 추진 선도 도시인 파리의 올림픽 기간 UAM 시험 비행과 도심 한가운데인 센강변에 설치한 부유식 버티포트 현장을 실제로 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파리의 올림픽 기간 UAM 시험 비행 사



사랑동 지역으로 이전한 부유식 버티포트 현장 전경



©남궁진

례를 볼 때 도심에서 UAM 이착륙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으로 초기 단계에는 도심의 건물과 인구가 밀집 분포되지 않은 강변 등 하천이나 대규모 공원녹지를 포함한 관광시설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 안전성 검증 이후에 강변에서 도심으로 운행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파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UAM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중 상업화 서비스가 불가하였던 주된 사유는 eVTOL 기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크지만, 센강 주변 도심에서 UAM이 비행하는 것에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한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의 영향도 작용하였다. 안전성 측면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도심에서 UAM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UAM 기체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기구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최초 도심 비행 인증을 획득하는 기체가 곧 나올 것이며,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UAM 실증과 상업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UAM 분야 글로벌 프런티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파리시의 시험 비행과 도심 버티포트 설치를 교훈 삼아 수용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추진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Groupe ADP. (2023). Volocopter and Groupe ADP at forefront of Electric Urban Air Mobility (UAM): a World First in Summer 2024. <https://presse.groupeadp.fr/uamparis/?lang=en>
- 2 Scerri, A. (2023). Will Paris see a floating vertiport for eVTOL trials in 2024? *Vertical*. <https://verticalmag.com/opinions/will-paris-see-a-floating-vertiport-for-evtol-trials-in-2024/>

국내동향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건축기획 시범사업 추진의 의의와 효과

남궁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과장, 건축공학박사

배경

건축기획 수행의 법적 근거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 방식 및 디자인 관리 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말한다”라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매우 밀도 있게 기획된 공공건축물은 건축문화유산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건축기획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문화적 가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가치구현과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019년부터 공공건축사업을 하려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건축기획 업무를 「건축서비스법」 제22조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기획 수행이 완료된 이후 후속 절차로 ‘사전검토’를 동법 제 2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전검토는 사업계획 및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경기도 사전검토 수행 현황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은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023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를 총 110건 수행하였다. 건축유형별로는 신축이 84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축 10건, 대수선 5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별 신청 건수

2023년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 현황

건축유형별 신청 건수				
계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
110	84	10	5	11
100%	76%	9%	5%	10%

신청기관별 신청 건수				
계	경기도	시·군	지방공기업	도 직속기관
110	6	92	11	1
100%	5%	84%	10%	1%

로는 시·군이 92건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공기업 11건, 경기도 6건, 도 직속기관 1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실한 건축 기획은 다수의 설계 변경을 발생시키고 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공공기관 비전문 담당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축기획의 품질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축기획 수행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건축기획 수행을 통해 건축기획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는 공공건축의 설계 및 시공 품질 향상에 영향을 주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22조 2에 따라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건축기획 수행 프로세스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공공건축 사업 수행에 있어 공공건축 건축기획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 건축기획 수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건축기획 수행 수행 절차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의 건축기획 수행을 위한 방식은 발주처, 센터 및 민간전문가의 협업 체계로 이루어졌다. 수행 절차로는 먼저 도내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 사업 가운데 규모, 상징성, 전문가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건축기획 수행 사업을 선정하였다.

건축계획 분야를 검토할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자문위원 중 사업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건축기획 수행 기간은 평균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공건축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건축기획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으로 1~2개월 추가되었다. 또한 건축기획을 센터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사전검토가 「건축서비스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며 그만큼 사업 일정이 1~2개월 앞당겨지는 이점이 있다.

건축기획 참여자의 역할

센터가 주관하는 건축기획 참여자로 발주처인 사업부서, 민간전문가인 건축사, 건축기획 주관기관인 센

터 등 세 부문이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사업일정·발주방식 등 사업기획 측면에서 기본 방침을 제공하며, 설계기획 측면에서는 수요사항을 제공하였다. 민간전문가는 제공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설계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이런 모든 과정을 주관하면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업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선정, 예산 수립, 규모, 소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침을 센터와 민간전문가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과 보완 작업을 사업부서, 민간전문가, 센터의 3자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다.

건축기획 시범사업 사례

건축기획 시범사업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개선사업 등 3건을 수행하였다. 건축 방식으로는 2건이 신축 사업이며 1건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의 규모와 상징성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 등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기획 시범사업 개요

구분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개선사업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경기북부소방학교
사업예산	151억 원	56억 원	493억 원
건축방식	리모델링	신축	신축
사업규모	연면적(신관): 4,629m ² (구관): 9,174m ²	연면적: 990m ² 부지면적: 2,000m ²	연면적: 7,090m ² 부지면적: 212,541m ²
부지위치	수원시 팔달구	광주시 송정동	연천군 백학면
수행기간	2024.4.~2024.7.	2024.4.~2024.7.	2024.8.~2024.11.
소요공간 프로그램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도가 설치한 공공 센터 등	차고, 사무실, 대기실, 감염관리실, 체력단련실, 의용소방대실, 식당, 휴게실, 센터장실 등	교육지원시설, 소방시설실습장, 지휘훈련·전문구급 실습장, 다목적 실내교육 훈련관, 도민안전캠프, 생활복지관 등

경기도청 옛청사 사무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신관과 구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무엇보다 예산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격상 사업 진행 중 공사비의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건축기획 단계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였다.

광주 송정119안전센터는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발주처와 밀접한 협의 과정을 통해 사전에 기획 오류를 파악하고, 수요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적정 건축 규모 제안과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소요공간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어 해당 내용이 과업지시서와 설계공모지침서에 반영되어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기북부소방학교는 북부 지역에 소방훈련을 목적으로 한 대단위 사업부지에 소방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검토가 중요한 요소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도출 과정이 필요하였다.

건축기획 주요 프로세스 중 센터, 사업부서, 민간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협의하는 주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센터 주요 회의 일정	민간전문가 주요 프로세스
착수회의 ·사업참여자 공유, 수행계획 발표 ·과업의 개요, 부지현황, 프로그램/활용계획, 사업추진체계, 일정 협의 ·발주처 방침 및 수요 사항 공유	사례조사/수요조사 ·현장조사, 착수회의, 발주처 수요조사 ·계획 방향 설정, 법규 검토, 부지현황 분석, 일정 계획,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기초조사,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공간구성계획, 사업예산, 사업추진일정, 계획 목표 및 주안점, 진행사항 협의	기획 설계 대안 작성 ·기획설계안 작성, 공사비 검토 ·기획설계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개발 방향, 계획 방향, 대안 검토, 기본구상안 최종안 협의 ·예산, 향후 사업추진 방향 공유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요청, 공공건축심의 자료 준비

요 회의로는 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최종보고회 등 3번의 회의가 열렸다. 이런 회의 과정을 통해 설계사가 검토한 기획설계안을 함께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사는 부지현황조사·법규검토·사례조사·수요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와 더불어 기획설계의 대안을 작성하고, 센터와 사업부서 등 주요 참여자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설계 지침을 작성하였다. 특히 주요 현안은 협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회의를 주관하고 조율하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센터는 사업계획 중 적정한 규모, 예산 수립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주 방식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지침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사에서 제시한 부지활용계획과 배치대안을 통한 적정한 소요공간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센터에서 주관하는 건축기획 시범사업은 센터, 사업부서, 민간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각각 분리된 과정을 연계·통합 관리하며 단계마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 검토 연계 과정을 통한 산출물은 설계지침서와 과업

지시서에 반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건축의 가치 제고 측면에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사업 일정을 단축시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주관 건축기획의 의의와 효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축기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방침을 구상-검토-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전문가(건축사)와의 양자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기획과 설계기획을 포함한 건축기획에 대한 결과물은 이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전검토 이후 공공건축심의의 과정이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설계공모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공공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건축기획을 수행하는데, 사업부서와 민간전문가는 상호 계약자 관계로서 상호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일련의 사업 진행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담당자가 공공건축 추진 사업에 비전문가일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기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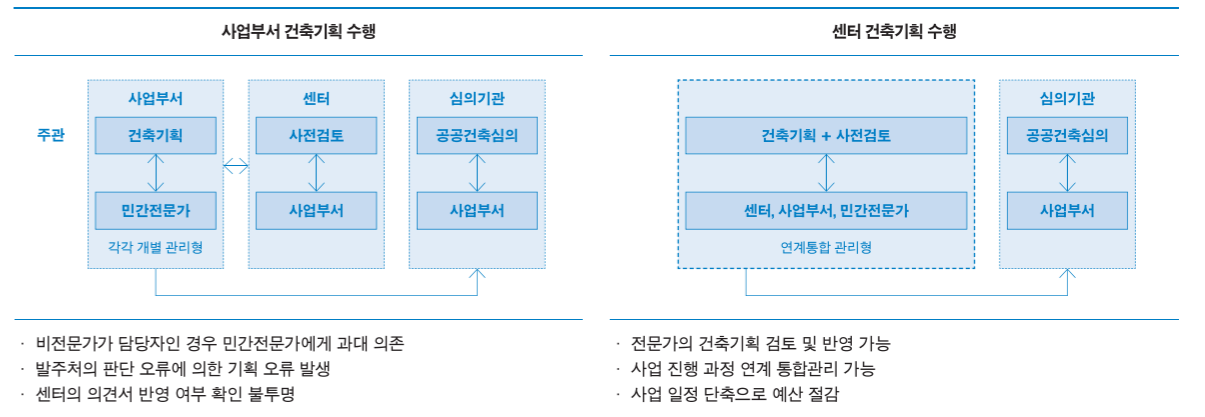
건축기획이 완료된 이후 센터의 사전검토 절차가 진행되는데, 센터 내 전문인력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를 1개월 정도에 걸쳐 검토하며 1회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종합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이후 센터에서 회신한 의견서를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지침서와 과업지침서에 반영하게 되며, 사전검토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공건축심의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점은 센터에서의 신청서 검토와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서만으로는 설계지침서와 과업지시서에 센터에서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센터에서 의견서를 회신한 이후 공공건축심의의 과정에 센터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센터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센터가 건축기획 대행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구상, 방침 설정, 예산 검토, 부지 활용방안, 소요공간프로그램 등에 대해 센터 내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검토하고 이를 설계지침서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건축기획 대행관리 수행 시 센터와 신청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 과

정상 기획의 적절성 등이 검증되고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과 규모 계획이 검토되고 조정된다. 또한 센터는 수행 경험이 '검증된 민간전문가(건축사)'를 활용하여 건축기획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센터 내 축적된 사전검토 수행 사례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건축기획 민간전문가(건축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어 통합된 정보 공유에 따른 효율성 있는 건축기획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센터는 2024년 도내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3건의 건축기획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수행 결과 발주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2025년에는 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과 맞물려서 건축기획 사업 대상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초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건축기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수행한 건축기획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통해 건축기획수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기획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 건축기획 수행의 특징



2024 유럽 공공공간상 수상작 발표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4/results
https://www.cccb.org/rcs_gene/Press_Release_Winners_European_Prize_2024.pdf



©Archigrest TopoScape



바르샤바 봉기 마운드 공원
출처: CCBC Public Space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4/press(검색일: 2024.12.2.)



©Annie Baugel



©EMBT - Miralles Tagliabue

포르토 도 손 해안 개선 및 항구 재개발 프로젝트
출처: CCBC Public Space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4/press(검색일: 2024.12.2.)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entre of Contemporary Culture of Barcelona: CCCB)가 2024년 유럽 공공공간상(European Prize for Urban Public Space) 수상작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 마운드 공원 (Park at the Warsaw Uprising Mound)과 스페인 포르토 도 손(Porto do Son) 해안 개선 및 항구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유럽 공공공간상은 CCCB가 199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 도시의 공공공간을 만들고 복구하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상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바르샤바 봉기 마운드 공원

바르샤바의 중심 지구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주거 지역인 모코토프 (Mokotów)에 들어선 공원으로, 역사적 공간을 주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도시에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도시 잔해들을 버리는 폐기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언덕(Mound) 자리이다. 1990년대에 이 언덕 위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등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접근이 어렵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곳에 고유 식생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녹지를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와 산책·휴식 공간 등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확충하였다. 특히 언덕에 남은 일부 도시 잔해를 재활용하여 콘크리트를 생성,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억의 장소이자 재생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더하였다.

포르토 도 손 해안 개선 및 항구 재개발 프로젝트

포르토 도 손 해안은 시대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개발과 확장을 거듭해 왔다. 1980년대 방파제가 건설된 후 항구 확장, 접근 도로 건설, 대형 아파트 블록과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주거지역과 항구는 멀리 분리되고 있었다. 이번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해안선과 기존 공원을 따라 '모래언덕(dune)'을 조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포장도로와 벽이 있었던 해안 공간에 자연을 다시 가져오고 주민들의 해안 공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모래언덕 공간에는 토착종 식물이 식재되었고, 도시공간과 공원을 잇는 보도가 놓였다. 어시장 근처에 들어선 구조물은 어망 건조대를 본뜬 형태로 세워져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된다. 대로(avenue) 개발과 함께 새로운 항구서비스센터도 계획되었다.

프랑스, 화물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충전 통로' 개통

https://trans.info/en/electric-truck-charging-399758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building-europes-electric-truck-charging-infrastructure

프랑스가 전기 대형 화물차 전용 충전 복도를 유럽 최초로 개통하여 대형 화물 차량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고속도로 운영업체 APRR과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 Engie Vianeo는 유럽 최초의 전기 화물차 전용 '충전 통로(charging corridor)'를 개통하였다.

충전 통로는 파리와 리옹 사이 440km 구간의 휴게소에 설치되었으며, APRR에 따르면 각 충전소에는 CCS 400-480kW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자의 휴식 시간인 45분 동안 트럭을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화물 운송업체들이 장거리 이동 시 전기 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화물 운송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에서 배출가스의 40%는 대형 화물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화물 차량의 전기화를 촉진하는 것은 탈탄소화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형 차량은 경량 차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고효율 충전소와 충전 포인트의 수를 늘려 많은 충전소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에 APRR과 Engie Vianeo는 대형 차량 전용 '충전 통로'를 설계하였으며, 충전 포인트 2개가 있어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4만 톤의 CO2 배출량을 줄이고, 내연기관과 관련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없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충전 통로는 향후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 슬롯 예약 시스템이 곧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충전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Engie Vianeo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에 추가로 11개의 충전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인접한 국가로 확장하여 유럽 전역에 걸친 전기 충전 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 대형 화물차용 리옹~파리 충전 통로
출처: https://www.auto-infos.fr/aprr/ Photo credits @ APRR (검색일: 2024.11.26.)



충전 통로에서 충전하는 대형 화물 전기차량
출처: APRR 홈페이지. https://presse.aprr.com/section/ressources/?lang=fra (검색일: 2024.11.26.)

뉴욕, 보행자 중심의 '퓨처 오브 피프스' 재설계 제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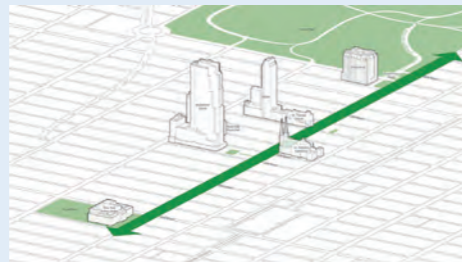
<https://www.nyc.gov/office-of-the-mayor/news/769-24/mayor-adams-future-fifth-partnership-transformation-fifth-avenue-world-class>
<https://architect.com/news/article/150451238/new-york-city-previews-initial-pedestrian-minded-future-of-fifth-redesign-proposal>
<https://futureoffifth.com/>

미국 뉴욕시가 맨해튼 미드타운의 5번가(Fifth Avenue)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인 '퓨처 오브 피프스(Future of Fifth)'의 설계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5번가가 조성된 지 200년이 지난 후 처음 시도되는 재설계이며, 센트럴 파크 사우스(Central Park South)에서 브라이언트 파크까지의 구간을 포함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5번가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자 공공공간으로 변모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곳에서 더 많은 경제·상업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5번가를 오가는 교통 유형을 조사한 결과 70%가 보행자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5,500명, 휴일에는 최대 2만 3,000명의 보행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전체 공간의 46% 정도에 불과하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기존 5번가의 구조는 높은 통행량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번가의 인도 공간을 46% 확대하고 차량 통행 차선을 5개에서 3개로 줄여 보행자 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교차로 길이를 3분의 1로 줄이게 되며, 23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1,858m²의 가로 화단(planter)을 추가해 녹지를 확충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좌석과 조명 또한 설치한다.

5번가 개선을 위한 계획설계는 2025년 여름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으나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등 현지 매체는 계획 승인 후 2028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애덤스 시장은 "이 계획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5번가 재설계 구간

출처: 출처: Future of Fifth 홈페이지. <https://futureoffifth.com/> (검색일: 2024.12.2.)



5번가 재설계 초안

출처: 뉴욕시 홈페이지. <https://www.nyc.gov/office-of-the-mayor/news/769-24/mayor-adams-future-fifth-partnership-transformation-fifth-avenue-world-class> (검색일: 2024.11.18.)

미국건축사등록원, 건축사 역량 표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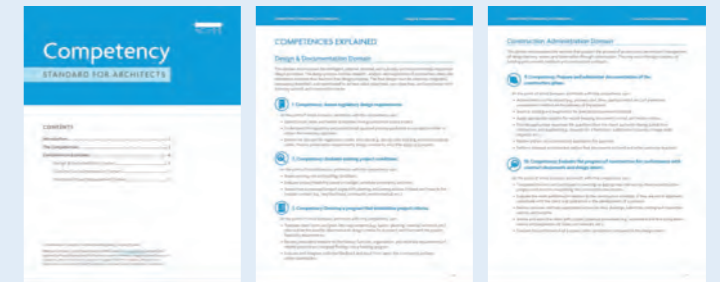
<https://www.ncarb.org/become-architect/pathways-to-practice/competency-standard>
<https://www.ncarb.org/press/ncarb-releases-new-competency-standard-architects>
<https://www.ncarb.org/become-architect/pathways-to-practice>

미국건축사등록원(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NCARB)이 건축 실무에 입문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정의하는 '건축사 역량 표준(NCARB Competency Standard for Architects)'을 개발해 공개하였다. NCARB는 건축가라면 대중의 건강·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가가 실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을 이번 표준으로 정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역량 표준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설계, 문서화 분야 ▲시공 관리 분야 ▲실무, 프로젝트 관리 분야가 그것이다. '설계, 문서화' 분야에서는 건축 규정과 프로젝트 요구 사항, 비용 목표 등을 충족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 관리' 분야는 프로젝트 조달부터 설계의도 반영 및 검토 등 시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평가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는 건축 실무 수행 시 필요한 법적·윤리적·전문적 기준과 비즈니스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NCARB는 이번 역량 표준 개발을 위해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약 2만 명의 건축가가 참여한 2022년 실무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건축사 취득 시점에 필요한 역량을 조사하였다. 이후 일반 대중과 약 5,000명의 건축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역량 표준을 고도화하고, 2024년 6월 NCARB 회원 의견 청취 후 9월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NCARB는 이번 역량 표준을 활용하여 건축사 취득 프로세스를 정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NCARB는 'Pathways to Practice' 이니셔티브를 통해 변화하는 건축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가가 되는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 건축인증위원회(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NAAB)의 인증 프로그램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을 위한 취득 모델 등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CARB 건축사 역량 표준

출처: NCARB 홈페이지. <https://www.ncarb.org/sites/default/files/Competency-Standard.pdf> (검색일: 2024.12.2.)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

주거복지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2024.10.29.

국토교통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비슷한 개념의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비용 문제가 있고,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제한된 입주조건이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는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1,000만 62명)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하였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시니어 주택(노인복지주택)은 39곳 8,840채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인구의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직계비속에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임대료 인상은 갱신 시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의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우수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며,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특화 시설 및 서비스

구분	커뮤니티시설		서비스	
	필수	선택(예시)	필수	선택(예시)
내용	· 의료지원시설 · 체력단련시설 · 식당, 다목적시설 등	· 사우나, 수영장 · 골프연습장, 당구장 · 노래방 등	· 응급안전, 안부 확인 · 식사 및 생활 지원 · 여가활동 서비스	· 동호회 운영 · 자산 관리 · 법률 조언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4).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10월 29일 보도자료.

부산시,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 방안 제시

부산시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24.10.29.

부산시가 승차 구매점 관리기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발표하였다.

승차 구매점은 흔히 ‘드라이브스루’라고 불리며, 자동차에 탄 채 햄버거·커피 등을 소핑할 수 있는 상점으로 최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1992년 한국 최초의 햄버거 승차 구매점이 들어선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78개의 승차 구매점이 영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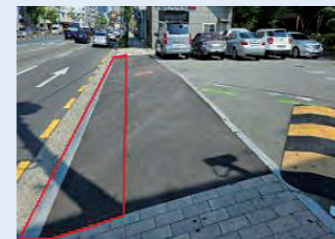
그러나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 기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승차 구매점 주변에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설치가 미흡하고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 구간 간 구별이 어려워 ▲나무와 입간판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매장 진입 대기 차량이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모든 승차 구매점이 규모 기준상 교통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매장도 78개소 중 12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구·군이 승차 구매점에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설치 의무사항으로 ‘승차 구매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가 매장 진출입로와 보도 구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정비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으로 포장할 수 있게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에도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승차 구매점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하였다. 더불어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받는 승차 구매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최소 면적 기준(1,000m²)을 삭제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시에 제시하였다.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사로 포장 설치 예시)



경사구간 색상 시공되지 않은 승차 구매점
출처: 부산시, (2024). 부산시 첫 성과감사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10월 29일 보도자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정비하는 도시들

인천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2024.10.7.

제주시 공원녹지와 공원관리팀
2024.10.17.

인천시, 노후 공원을 다세대 통합 공간으로 재정비

인천시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원을 여러 세대의 필요를 반영하여 새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에 진행된 '노후 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230개소의 노후 공원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총 34개소의 공원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이 중 2개소를 정비하였다.

이번에 정비한 두 곳은 서구 새말 어린이공원과 부평구 뫼골 문화공원으로, 공원 주변 인구 분포 및 주민 이용 현황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 운동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서는 개별 공원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늘여가는 시니어 인구를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스텝바 건너기, 곡선 경로 따라 움직이기 등)를 설치하였다.



서구 새말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 모습(좌)과 시니어 운동기구(우)
출처: 인천시. (2024).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인천 노후공원 새롭게 탈바꿈한다. 10월 7일 보도자료.

제주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제주시가 12월까지 연동지역 67호 어린이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한다. 시가 추진 중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장애·비장애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공간 구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동부 지역(신산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1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나, 서부 지역에는 아직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어 연동 지역 67호 어린이공원에 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67호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재정비하여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인 모래놀이터, 다인그네, 슬라이드, 정글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의 문화생활, 휴식공간으로 되살아난 도심 속 유희공간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2024.10.15.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2024.10.18.

충청북도, 버려진 벙커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면 개방

충청북도가 버려진 벙커 시설에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였다.

'당산 생각의 벙커'는 1973년 당산의 암반을 깎아 전시 지휘통제소와 충무시설로 활용하였던 공간으로 폭 4m, 높이 5.2m, 길이 200m, 연면적 2,156m²로 총 14개의 격실이 존재한다. 도는 이 중 규모가 큰 격실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영상자서전의 방', '동굴 드로잉 방', '휴식 광장의 방'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가능한 7개 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당산 생각의 벙커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공간으로, 이번 개방을 통해 전체 사업에 대한 도민 홍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체육시설용지 유희지 잔디광장으로 조성

세종시가 새롬동 유희지 7,154m²를 도심 속 임시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용지로 시설 건립 전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부지 근처에 새롬동 주민센터와 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그동안 공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도시 체육시설용지 장단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용지의 단기 활용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사업 결과 1,000여 평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목수국 등의 관목·초화류와 함께 맨발 산책로,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이 설치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시 관계자는 "잔디광장이 체육시설 건립 전까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어 줄 것"이라며 "각종 야외 행사 때 활용 가능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당산 생각의 벙커 평면 구성(안)
출처: 충청북도. (2024). 김영환 지사, "당산 생각의 벙커,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 재탄생 기대". 10월 15일 보도자료.



세종시 새롬동에 조성된 잔디광장
출처: 세종시. (2024).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희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10월 18일 보도자료.

3

‘공중에 떠 있는 학교’ 용남고등학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교실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 교육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이면서도 실험적으로 연결된 학교 공간을 오가며 학생들은 매일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탐험을 하게 된다.

‘도깨비마당’은 지역 시장 앞 공영주차장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해 시장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재조성한 프로젝트다. 확장과 분리가 가능한 내부 공간은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은 매일 이곳을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다.



아름다운
이름을
찾다



도깨비마을

장소 탐방

Place Review

떠 있는 학교 - 용남고등학교 | 공중 교실들의 배치와 연결 방식은 학생들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한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며 우연한 만남과 교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와 아이디어에 노출되어 창의성이 자극된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과 만남은 협력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촉진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을 위한 쉼표의 공간 - 도깨비마당 |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기차고 다기능적인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재구성한 도깨비마당 프로젝트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공간 재구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깨비시장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떠 있는 학 교

용남고등학교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설계연구소 대표

개요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4
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33,455m ²
건축면적	2,963.06m ²
연면적	5,542.13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7.5m
건폐율	22.01%
용적률	43.62%
구조	일반 철골
구조설계	이든구조컨설턴트
설계	변상현, 구창림, 이하준, 이성태
설계담당	박기우
시공	(주)담소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상원엔지니어링, 대한엔지니어링
설계기간	2020.10.~2021.12.
시공기간	2022.2.~2023.7.
공사비	약 180억 원
건축주	용남학원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설계연구소



북서측 수공간, 테그박스 휴게공간



기존의 수직적인 교육 공간은 학생들의 움직임과 행동반경을 예측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공간의 제한은 곧 사고의 제한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교육 공간이 필요해졌다.

남동측 테라스형 교실 전경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 설계연구소

테라스형 교실과 휴게 데크가 있는 전경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 설계연구소



상 중앙관 2층 도서관
하 도서관 학습스테이션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설계연구소



상 낮에 본 수공간 전경
 하·좌 중앙관 3층 교무실
 하·우 교실의 슬라이딩 도어와 무빙월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설계연구소



상 서관
 하·좌 중앙관 4층 교사휴게실
 하·우 서관 2층 교무스테이션

오픈형 도서관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서로 협력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도서관은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에 서게 된다.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설계연구소

밤에 본 수공간

기존의 수직적인 교육 공간은 학생들의 움직임과 행동반경을 예측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공간의 제한은 곧 사고의 제한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교육 공간이 필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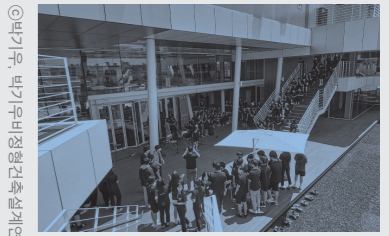
용남고등학교의 '떠 있는 학교'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개념은 교실들을 공중에 띄워 수평적으로 배치하고, 그 아래에 오픈형 도서관을 두는 것이다. 교실들은 테라스 형태로 펼쳐져 있어 학년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교실과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며,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를 장려할 것이다.

수직적 공간에서 수평적 공간으로의 전환

기존의 수직적 교육 공간은 교실과 복도가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이동과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반경을 예측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만들어 창의성 발현을 가로막았다. 이에 반해 용남고등학교의 '떠 있는 학교'는 수평적 공간 구조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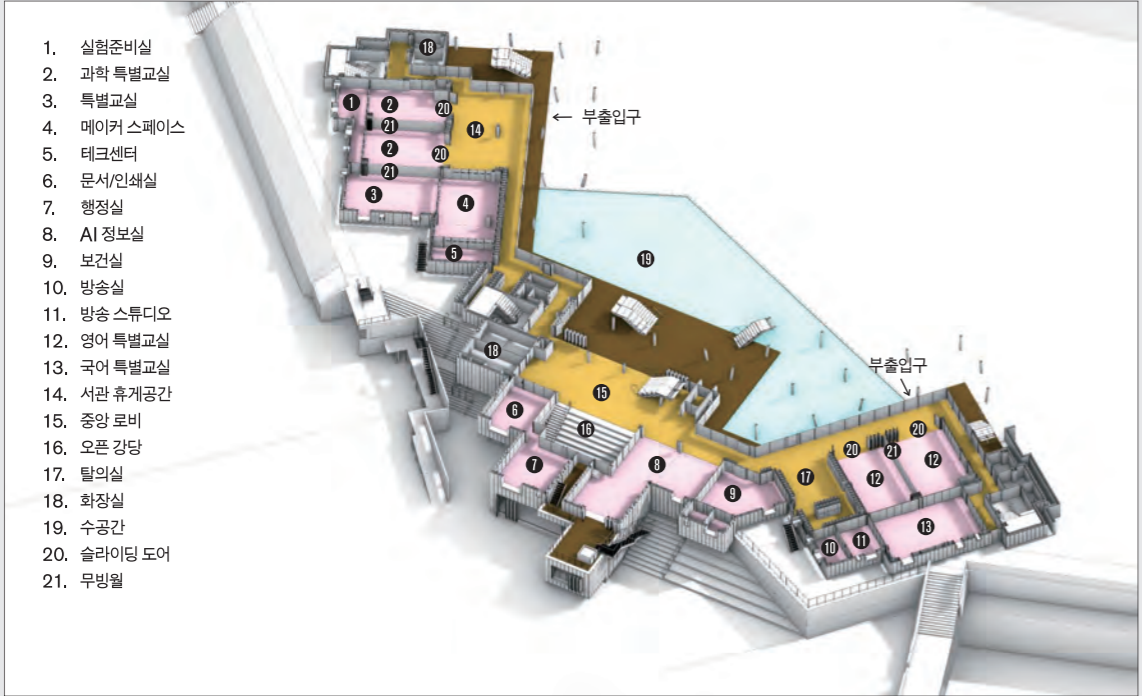
수평적 공간 구조는 교실들을 공중에 띄워 테라스 형태로 펼쳐서 배치하여 학년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많아져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이 활성화된다. 또한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공간 구조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유도한다.

교실들은 공중에 떠 있지만 오픈형 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서관은 학생들의 홈베이스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수평적 공간 구조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로운 학습과 성장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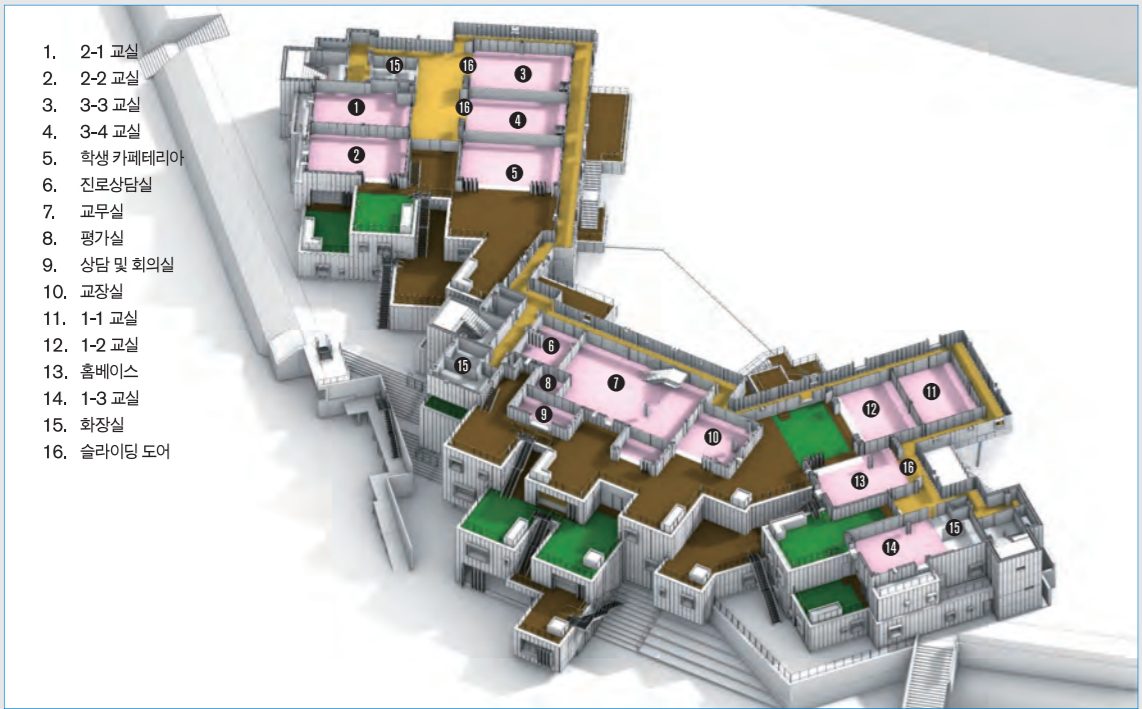


1. 중앙관 1층 도서관 앞 휴게 데크 및 수공간
2. 슬라이딩 도어로 도서관과 직접 연결되는 수공간
3. 수공간 전경
4. 중앙관 지하 1층 오픈 강당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설계연구소



1층 3D 평면도



3층 3D 평면도

교실의 배치와 연결 방식 변화

용남고등학교의 공중 교실은 테라스 형태로 펼쳐져 있다. 교실들은 공중에 불규칙하게 띄워져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실 사이에는 다리와 계단, 램프 등의 연결 통로가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 구조는 예측 불가능하고 모험적이어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험심을 자극한다.

교실들은 단순한 직선 형태가 아니라 곡선과 꺾임, 틈새가 있는 유기적인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시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교실 사이를 이동하며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교실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업 중에도 다른 교실의 활동을 엿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서로의 학습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공중 교실들의 배치와 연결 방식은 학생들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한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며 우연한 만남과 교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와 아이디어에 노출되어 창의성이 자극된다.

오픈형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도서관은 공중에 떠 있는 교실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학습할 수 있다. 도서관은 고교학점제와 연계되어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자료,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춰 폭넓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는 개별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소그룹 학습실, 프로젝트룸, 강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개별 학습, 협력 학습,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서관에는 전문 사서 교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 주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워크숍을 열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돕는다. 이렇게 도서관은



1. 서관 2층 학생 휴게 및 다목적 공간
2. 중앙관 2층, 개방형 도서관
3. 홈페이지 개방형 도서관 앞 리딩 테이블
4. 동관 2층 홈페이지 앞 오픈 공부방



단면도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오픈형 도서관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서로 협력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도서관은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에 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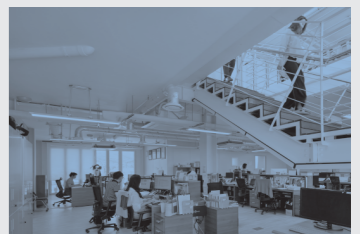
학년, 나이 구분 없는 통합 학습 공간

용남고등학교의 '떠 있는 학교'에서는 학년과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학습할 수 있는 통합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연령과 학년 구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연령과 학년 구분은 학생들의 경험과 관점을 제한하여 협소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통합 학습 공간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서로의 아이디어와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폭넓은 시각을 기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상위 학년 학생들의 멘토링과 하위 학년 학생들의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상호 학습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통합 학습 공간은 다양한 학습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협력 프로젝트, 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의 활동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 개별 학습에서도 선배 학생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용남고등학교의 통합 학습 공간은 연령과 학년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열린 사고와 창의성,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1. 중앙관 3층 교무실 앞 공중정원
2. 중앙관 지상 2층 옥상잔디
3. 도서관과 교실로 연결된 옥상잔디 휴게 테크
4. 중앙관 3층 교무실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물설계연구소



상 중앙관 4층 교사 휴게실
하 도서관과 교실로 연결된 휴게 테크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능동적이고 개별적 학습의 공간

용남고등학교의 '떠 있는 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 방식의 큰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방식도 기존의 획일적이고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떠 있는 학교'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먼저 교실들이 공중에 띄워져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계획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오픈형 도서관은 개별 학습과 자기주도적 탐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서관에는 수준별 학습실, 프로젝트룸, 강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개별화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떠 있는 학교'의 공간 구조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는 과목과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협력 학습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떠 있는 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잠재력을 깨우는 공간의 힘

용남고등학교의 '떠 있는 학교' 개념이 제시하는 수평적 교육 공간은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공간 구조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창의성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지원하고 협력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장려하여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수직적 공간 구조는 학생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여 창의성 발현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떠 있는 학교'의 수평적 공간 구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수평적 공간 구조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한다. 통합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어울리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열린 사고와 창의성,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기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공간 설계가 필수적이다. 용남고등학교의 '떠 있는 학교'는 이러한 공간 구조를 실현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기우, 박기우비정형건축물설계연구소



상 슬라이딩 도어와 무빙월이 설치된 교실
하 중앙관 지하 1층 오픈 강당

주민을 위한 심포의 공간

도깨비마당

김명재, 최여진
플룻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0길 51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기존존치시설)
대지면적	1851.50m ²
건축면적	223.70m ²
연면적	306.60m 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82.72m ² (금회 시업시행 연면적)
규모	지하 2층, 지상 2층(증축 부분은 지상 2층에 한함)
높이	6.33m
건폐율	12.09%
용적률	16.56%
구조	철근콘크리트(기존)+철골라멘조(신설)
구조설계	(주)이든구조컨선티트
책임설계	김명재
설계팀	최여진, 강민선
시공	(주)도도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주)건창기술단
설계기간	2022.10.~2023.4.
시공기간	2023.11.~2024.3.
공사비	약 5.8억 원
사업기획	서울특별시청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건축주	도봉구청
관련 사업	서울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 플룻건축사사무소



새로운 주민공간으로 자리 잡은 도깨비마당



도깨비마당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의 단절된 입면의 연계를 해결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산발적으로 덧붙여진 주차장 캐노피와 컨테이너 유닛들을 절거하고, 주차장 진출입구와 주차관리실을 아우르는 수평적 플랫폼을 삽입하여 건축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 환경에서 시각적 인지성을 높였다. 새롭게 삽입된 단순하면서도 차분한 박스의 형태는 복잡한 전통시장과 밀도 높은 저층 주거지 사이에서 공간의 명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도깨비마당과 주민들



©조선영(주영로고)

도깨비마당과 공원을 연결하는 계단형 쉼터



©권보준(엘리브엑스)



©플랫건축사사무소

상 새롭게 제안된 그리드로 인해 통일감 있는 입면 조성
하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 전면



© 권보중(주) | 박민희(주) | 박영진(주)

방치된 주차장 램프 상부를 이용해 조성한 열린 공간



© 권보중(주) | 박민희(주) | 박영진(주)



© 권보중(주) | 박민희(주) | 박영진(주)

상 사용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되는 내·외부 공간
하 내·외부의 연결을 통한 나눔마당의 확장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기차고 다기능적인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재구성한 도깨비마당 프로젝트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공간 재구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깨비시장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도깨비마당 프로젝트

소통의 중심 공간 나눔마당

도깨비마당의 시작

도깨비마당 프로젝트는 2022년 서울시가 주최한 ‘감성여가공간, 서울철틈찾기’ 공모에서 당선되며 시작되었다. 이 공모는 서울시의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프로젝트 대상지를 찾기 위해 도봉구 방학동 곳곳을 걸으며 조사하던 중 도깨비시장 초입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도봉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통 시장과 북측 공원에 인접하여 주민 거점 공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벤치나 계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장 방문객들의 모습은 이 장소가 이미 비공식적인 쉼터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연령대가 높은 이용객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쉽표 같은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상지 선정 후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방학동이 서울 내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이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받는 도깨비시장과 공영주차장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도봉구의 대표적 명소로, 서울의 320여 개 재래시장 중 ‘우수 재래시장 8곳’에 선정될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이다. 1982년에 주택가 골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점이 그 기원으로, 당시 장이 열리던 도로가 소방도로였기 때문에 단속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노점이 사라졌다가 다시



© 도깨비시장

옛 공영주차장 풍경과 쉬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 도깨비마당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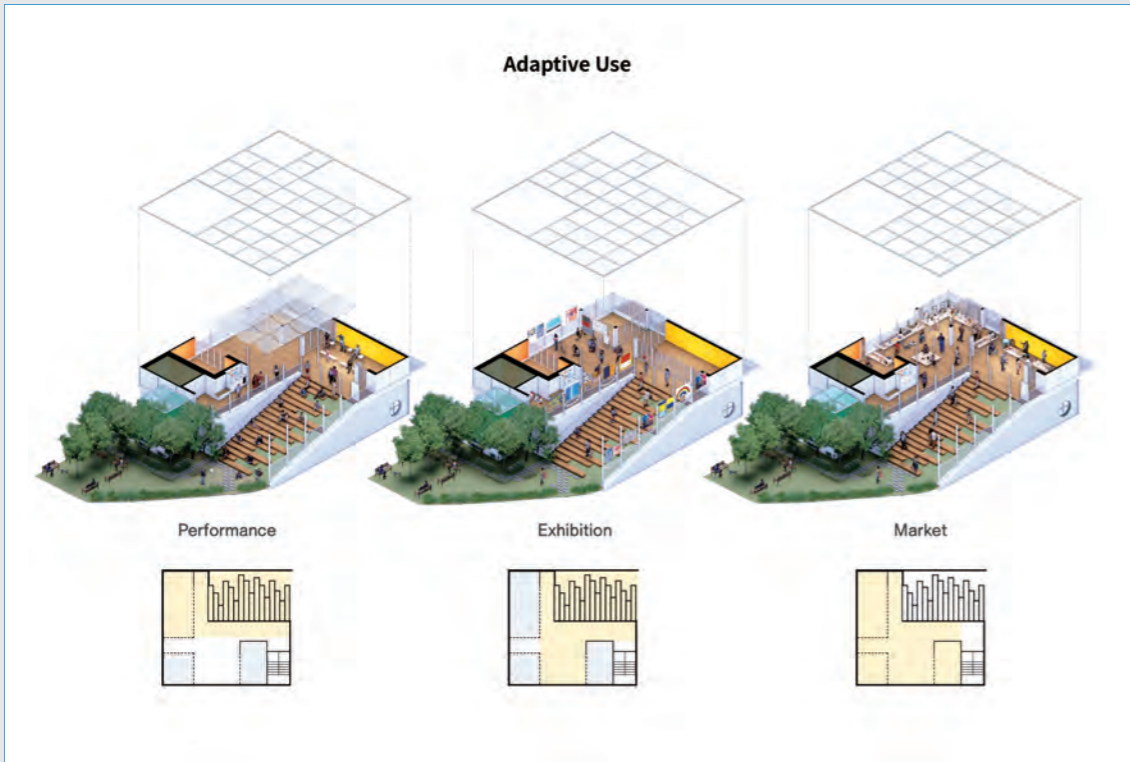


상 새로운 주민공간으로 자리 잡은 도깨비마당
하 새롭게 제안된 그리드로 인해 통일감 있는 입면 조성



©폴북건축사사무소

디자인 콘셉트



다양한 사용 목적에 따른 창의적인 공간 사용 예시

나타나기를 반복하였으며, 이런 모습이 마치 도깨비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재래시장의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3~2004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은 도깨비시장은 현재도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로 북적이며,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한편 도깨비시장 초입의 공영주차장은 2010년 시장과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과 1층 주차관리시설로 구성되었다. 준공 당시에는 주차관리실과 화장실만 있었으나,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능이 여러 차례 더해지고 변화하면서 점차 복합적인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2층에 자리 잡고 있던 도깨비연방 공간은 방치되었던 주차관리실을 2011년에 주민 카페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후 상부에 컨테이너 유닛을 증축하여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초기에는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활발히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특정 단체의 점유로 인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주민 플랫폼과 유연한 그리드

기존 건물의 입면은 빈번한 용도 변화와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해 주차장 진출입구와 주차관리실 사이의 연계성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도깨비마당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의 단절된 입면의 연계를 해결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산발적으로 덧붙여진 주차장 캐노피와 컨테이너 유닛들을 철거하고, 주차장 진출입구와 주차관리실을 아우르는 수평적 플랫폼을 삽입하여 건축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 환경에서 시각적 인지성을 높였다. 새롭게 삽입된 단순하면서도 차별한 박스의 형태는 복잡한 전통시장과 밀도 높은 저층 주거지 사이에서 공간의 명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과거 도깨비연방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였던 것처럼, 시대적 흐름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김현희(福山正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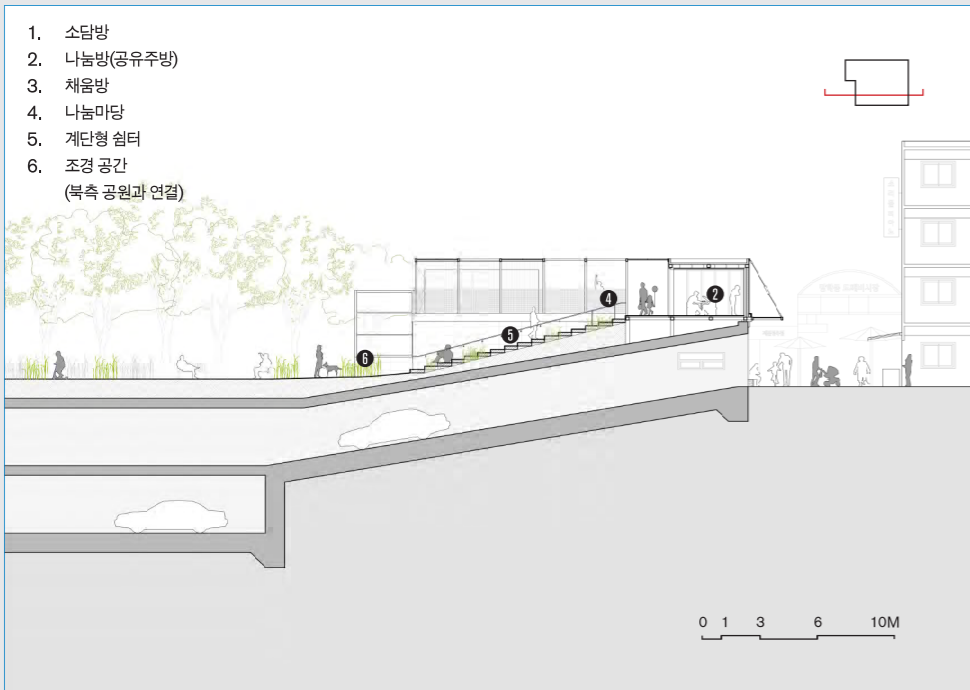


상 도깨비마당과 주민들
하 방치된 주차장 램프 상부를 이용해 조성한 열린 공간



©폴북건축사사무소

2층 평면도



단면도

공영주차장 상부에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확장과 분리가 가능한 세 개의 방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구축하였다.

상부 그리드 시스템에는 FRP 패널을 설치하여 외부공간에 그늘을 형성하였다. 격자의 FRP 패널은 흰색의 차분한 메탈패널에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중정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차분한 외관과는 대조적으로 내부공간에는 채도 높은 컬러를 활용하여 각 공간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쉼터, 마주침과 기능성의 확장

하나, 잠시 쉬어 가기: 1층 벤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방학동은 서울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도깨비시장 방문객들의 평균 연령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를 고려해 건물 1층의 남측과 서측 입면에 벤치와 플랜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잠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기존 입면 재료인 붉은 벽돌을 활용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소규모 쉼터로서의 기능을 담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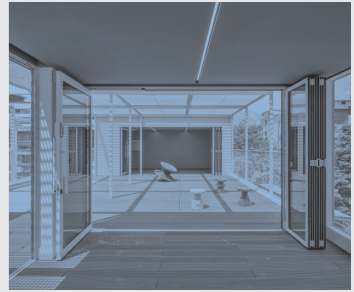
둘, 함께 쉬어 가기: 북측 계단형 쉼터

기존 건물의 북측 배면은 공원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지만, 공원과 주차장 램프 상부의 지붕 경사를 연결하여 계단형 쉼터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북측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2층 공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입체적인 형태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구축하였다.

셋, 소통 확장하기: 2층 도깨비마당

2층 증축 부분에 계획된 3개의 방은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공유주방을 활용하거나 휴식 및 소규모 모임과 같은 활동을 가질 수 있다. 중앙에 위치한 나눔마당을 중심으로 실들을 확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

©김재현(金在顯) 건축사



상 사용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되는 내·외부 공간
하 내·외부의 연결을 통한 나눔마당의 확장

auri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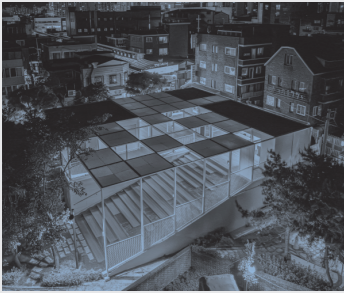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작은 공간의 변화, 지역 커뮤니티의 새로운 중심으로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기차고 다기능적인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재구성한 도깨비마당 프로젝트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공간 재구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깨비시장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방치되고 단절된 건축물 후면 공간을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과 만남을 포용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완공 후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건물 전면과 옆면에 새로 마련된 1층 벤치에서 쉬어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흐뭇함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도깨비마당이 단순히 물리적 쉼터로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공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이 공간이 건축가의 의도를 넘어 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고 활용되기를 기대 본다.



© 건축공간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

상 도깨비마당과 공원을 연결하는 계단형 쉼터
하 소통의 중심 공간 나눔마당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상민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연구	남성우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조영진

수탁과제

❶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7년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수립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국민들이 경관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2개 목표를 수립하고, 3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16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지역 경관관리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로 경관을 형성·관리·확산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3개 목표를 수립하고, 3개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 1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24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정책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여건 변화와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1,000명, 관련 분야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국토경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참신한 경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경관정책을 마련하고자 경관과 관련한 도시·건축·조경·공공디자인·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TFT를 구성하고, 최근의 정책변화와 사회 여건에 대응하여 경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수립한 두 차례의 기본계획 내용을 내실화·고도화하고, 나아가 민·관·산·학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관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경관의 형성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공청회(12월 3일)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❷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스마트+빌딩은 건축물을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들의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혁신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빌딩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에 민-관 협의체인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담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들 중에서는 정책 실행력을 수반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가칭)스마트+빌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을 위한 근거 자료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제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방안으로 다뤄야 하는 당면 과제들 도출하고, 스마트+빌딩의 개념에 따라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건축 관련 법령들의 조항 및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의 제도 수요를 반영하고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항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융합 혁신을 위한 건축 제도를 제정하고 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건축 분야에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남성우

❸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정책 효과의 미비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모들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영유아 동반가족은 외출 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갈등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전용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유모차 우선 주차장을 도입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영유아를 위한 주차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도입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대안을 제안하고, 관련 하위법 및 조례 개·제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 환경 개선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진

2024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6일(목) 원베일리 인바이트 지역문화센터에서 2024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증 제도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는 배선헌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박선희 (주)에스비환경디자인 소장을 비롯하여 배선헌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득 (사)한국건축가협회 연구부회장,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여하여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 고령친화 정책포럼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 주거정책의 이슈와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0일(목) 그랜드센트럴 오피스리움에서 '2024 고령친화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의 개최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주거지원 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의 '고령친화주택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이 '일본 시니어하우징의 운영 사례와 국내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상욱 KB금융그룹 사업개발본부장이 '국내 노인주거서비스 개발전략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노인복지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최정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장, 최형 한국주거학회 이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2024 제6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민간참여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31일(목)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에서 '2024년 제6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부산시 도시재생박람회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창조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민간참여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먼저 전은호 모라비아앤코 커뮤니티브랜딩 본부장의 '지역재생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진화' 발표를 시작으로, 안나리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실장이 '메이커들과 함께 만드는 로컬브랜드, Made by 약사천'을 통해 지역활성화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장과 한지숙 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사무국장,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이 참여하여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auri International Forum
'Designing Safer Spaces :
Environmental Design, from
the Security to the Safety,
and for the Active Living'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5일(화)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범죄 예방,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으로, 'Designing Safer Spaces : Environmental Design, from the Security to the Safety, and for the Active Living'라는 주제 아래 고령자를 위한 공간환경 조성 과 안전한 공간을 위한 구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치매 어르신도 안전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주제로 Habib Chaudhury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범죄예방·안전을 위한 녹지 공간의 조성 과 커뮤니티 설계'를 이성민 미국 A&M 대학 교수가, '식품 접근성의 불평 등 해소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공간 조성'을 Hui Cai 미국 조지아 공대건축대학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서울에서 고령자로 안전하고 활기차 게 생활하기 : 초고령사회에서의 공간적 이슈 찾기'를 강범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건축도시공간 조 성을 위한 고찰'을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성과를 공유하 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범죄예방, 안전 및 건강 분야의 최신 동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건강한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2024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세미나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는
가능한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는 11월 8일(금) 서울공예박물관 교 육동 강당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도 시설계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도시설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자 공동 기획되었다.

먼저, 김미영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도시사회학 관점의 지 속가능한 도시 조건'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도시설계과정과 지속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건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탄소중립 도시설계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실 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송기항 (주)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와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공간구조개편과 모빌리 티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를 각각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 며, 김희수 (주)라이트브라더스 대표,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전 우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정삼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도로 팀장, 임저스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교수가 참여하 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1 월 11일(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세션1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제언'을 주 제로 Silvia Casorran Martos 스페인 도시 및 지역 자전거 네트워크 사무 총장이 'Let's protect schools'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Asa Thomas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브리스톨 대학교 교통사회센터 연구위원이 'play street/school street'를 비대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세 번째로 Gabriele Herzog 오스트리아 라츠시 도시교통계획 팀장이 'school road'를 영상 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세션2는 '보행환경 개선사례를 통한 시사점 공 유'라는 주제 아래 OHKOUCHI keiko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종합정 책연구소 주임연구관이 '일본 호코미치(보행자편의증진도로) 사례'를 발 표하였고, Pablo Carreras 프랑스 Codra Conseil Inc. 지속가능교통 전 문 컨설턴트가 '파리 올림픽 기간 보행 활성화를 위한 액티브 디자인 전략' 을 영상으로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RUI Izumiyama 일본 니혼대학 건 축학과 부교수가 '일본 보행자를 위한 도로공간 전환 사례'를 통해 해외 보 행환경 개선사례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 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발제자 3인이 참여하여 보행자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을 위 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4 AURI 경관포럼-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
세미나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공동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경관학회는 11월 15일(금)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2024 AURI 경관포럼×(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배정환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의 기조발제 '경관이 만드는 도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관법 제정 이후 국토경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한다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경관의 "제주다움"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혜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지역 경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토론에는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민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정두용 인하대학교 도시재생학전공 객원교수, 고성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대표가 참석하여 경관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등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2024
AURI 주거정책포럼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8일(목) 스파크플러스 1층 이벤트홀에서 '2024 AURI 주거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인문·사회·경제적 관점과 공간적 실태를 논의하고 전문가와 정책실무자가 함께 청년가구의 주거현실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마민지 쌤픽처스 영화감독이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본 청년주거사'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생활공간 실태'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박사가 '청년의 주거 부담가능성'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 단장이 '청년의 주거생활공간 수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과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참여하여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건축·도시·건설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일(월)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건축·도시·건설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건축·도시·건설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 공유와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이세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성시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역계획팀 박사가 '도시계획에서의 거대 언어모델 도입 가능성'을, 김강민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국가건설기준의 중복·상충부 관리를 위한 초거대언어모델 활용'을, 이어서 정민주 제이케이 컨설팅 대표가 '하자보수 건설 AI 기술 적용방안'을,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Speech to BIM 적용사례'를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지원 서비스(Archilaw) 연구성과'를 통해 건축·도시·건설 분야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남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강범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건축·도시·건설 분야의 AI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포럼 개최와 더불어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rchilaw)」도 공개하였으며, 내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정책과 실무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3일(화)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1차와 2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서 비전실현을 위한 세 가지 목표(▲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 ▲미래 건축문화 자산 창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를 설명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짐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배웅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관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 일반 시민 참석자 등과 함께 미래 경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안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4 HUE INTERNATIONAL FORUM 공동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HMCC, SMC Hue와 12월 6일(금)에 '2024 HUE INTERNATIONAL FORUM'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2년부터 베트남 후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후속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 후에시의 소속기관인 후에발전연구원(HueIDS), 후에정보기술센터(HueCIT)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추진하였다.

이번 포럼은 문화유산,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으로, 'Green & 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Cultural Industry & Heritage Economy in Thua Thien Hue'라는 주제 아래 역사문화 보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영범 원장은 '도시의 문화경쟁력과 박물관의 가치'를 주제로,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녹색 도시를 향한 비전 : 한국의 도시 공원 정책과 베트남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편, 건축, 역사문화, IT, 녹색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녹색경제, 디지털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베트남 후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12월 19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AURI 건축도시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축, 도시공간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한 민관협력형 사업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사회혁신실험 적용 의미'를, 한지숙 동해시 시범사업 앵커조직 총괄PM이 '동해시 대진항 어대노생활권 마을보건실 실험과 성과'를, 김소영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가 '로컬관광을 위한 어촌공정여행 운영 성과', 손유진 거제시 시범사업 앵커조직 팀장이 '지속가능한 지역 경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항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명상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사무관,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추진위원장, 조성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중호 소풍벤처스 벤처파트너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 단신

auri 소식
—
Vol. 56
Winter 2024

건축공간연구원-대구광역시 수성구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10월 15일(화)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리는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의 개막행사에서 공공건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건축·도시 공간 분야 관련 정책 발굴, 연구 지원 협력 ▲건축·도시 관련 행사 공동개최 및 협조 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 발전과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양 기관이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구건축사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남구건축사회는 10월 22일(화) 강남구청에서 건축문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업무 지원,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협력, 강남구 건축문화 구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정책과제 도출 등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공공건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과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킨키대학교 MOU 체결 및 국제교류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킨키대학교는 10월 29일(화) 일본 오사카의 킨키대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과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수 및 연구 전문가의 교류 ▲연구 자료, 출판물 및 학술 정보 교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한일 양국의 건축·도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과 우호 협력 증진 및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과 연계하여 국제교류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 생활공간 및 주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이카와 하나(関川華) 킨키대학교 준교수의 ‘도시형 보육시설에서의 야외 활동 현황’, 엄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의 ‘아동을 위한 주거’ 등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어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어린이 생활공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한솔아이키움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세종시교육청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솔아이키움은 11월 21일(목)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에서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두 기관은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정책 및 제도 개선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협력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를 통한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에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또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12월 12일(목) 세종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늘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강사 인력풀 구축 ▲늘봄 프로그램 홍보 및 학교 매칭 등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시교육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AURI 세션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민관협력 방안'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일(토)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함께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민관협력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방중소도시재생 현황과 사례 등 주제발표 및 토론을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주제발표는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방중소도시 재생 10년간의 변화: 영주, 군산사례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송성진 유한회사 공유인 대표이사의 '민간주도의 지역재생: 군산 리터닝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 조준배 영주시 총괄계획가/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4 AURI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6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동연구 수행, 논문작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에세이, 포스터, 동영상 등 3개 분야를 모집하였으며, 특히 특별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와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를 대상으로 손그림과 디지털 드로잉(그래픽 프로그램, 태블릿 등 툴을 이용한 그림)아이디어를 함께 선정하였다.

심사를 통해 총 16점을 선정하여 일반부분과 특별부분에서 각각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일반부분에서는 우수상 1점, 장려상 5점을 특별부분에서는 고학년부와 저학년부에서 각각 우수상 3점을 수여하였다.

특별부분 대상에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동 마다 계절이 다른 세계적 아파트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일반부분 대상에는 폐점한 도심 내 대형 유희 공간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을 제안한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이 선정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수행 연구과제

기본과제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허한걸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현대환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손은신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김성준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김용국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허재석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이혜원	지역맞춤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송유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배선혜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김상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 정인아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조상규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유재연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안 이주경
인구감소도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변은주	'지역 Space-MBT'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박성남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평가·심의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이화영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윤진희
이재민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박유나	

수시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오민정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박일향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방보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 연구 김민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김준래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남궁지희

수탁과제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은석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웹프 데스크 운영 지원 김영현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육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4차년도) 이은석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김은희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심경미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시스템 개발(3차년도) 오성훈
보행안전지수 시범운영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남궁지희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연구 심경미	'24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서수정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오성훈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김은희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연구 남성우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신치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은석	2024년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엄윤진
스마트플러스빌딩 로드맵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상규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기획 남성우	2024년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건축물관리제도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조영진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영관리 위탁용역 이여경	현충시설 건립 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 손은신	2024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김용국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연구 오성훈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도 합리화 방안 성은영	인천광역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김준래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남성우	2024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용역 김은희	스마트도시 연계성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제도 개선 연구 권오규
공원전용 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오성훈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고구려·예맥 역사문화권) 심경미	안서동 대학로 청년안심 탄소중립 보행환경 개선 연구용역 이은석
공공건축물 관리 및 운영 기술개발 기획 김상호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심경미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한수경
	5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해석대로 읽는
건축법 2023
이여경, 이화영, 홍예은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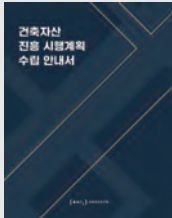
건축법제동향 2023
건축규제혁신센터
비매품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2022
오성훈, 남궁지희,
김영지, 변혜영
비매품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이여경, 이주경,
김민지, 홍예은
비매품



건축자산
진행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
이규철, 박채린
비매품



제주 한옥,
박씨초가 이야기
국가한옥센터, 양건, 김태일,
고기봉, 이창규, 강정은
비매품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이여경, 김준래, 오세원
비매품



어촌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2
김상호, 김은희, 조시은, 오민정
비매품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행조사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제한공도
운영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